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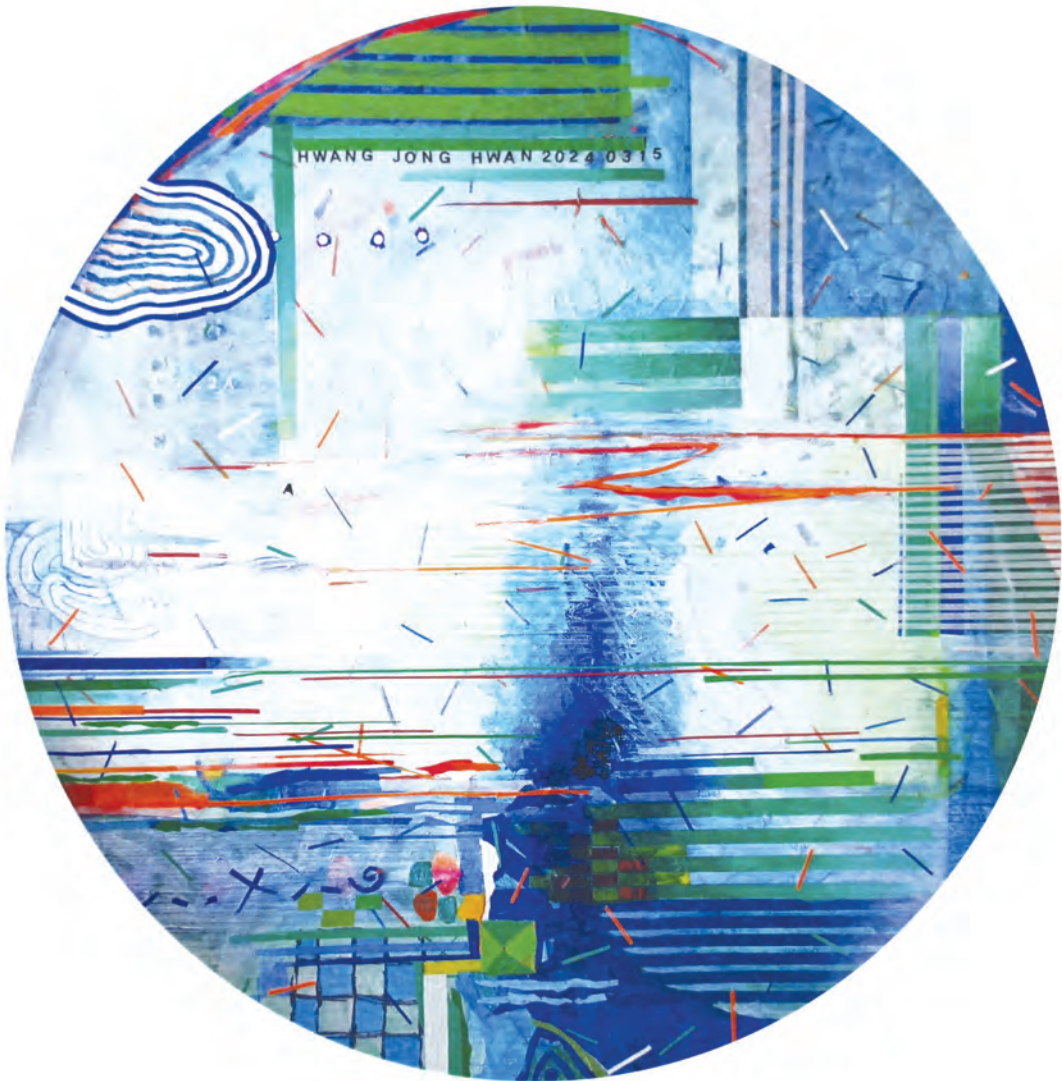


우수콘텐츠잡지
2023

ART BUSAN MONTHLY

예술부산

2025·9 VOL.243



사단법인 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무지카비바 챔버앙상블

**MUSICA VIVA
CHAMBER ENSEMBLE**

**예술가의
생애** 제37회
정기연주회

2025.9.30 화 PM 7:30
부산문화회관 챔버홀

주최·주관 무지카비바 챔버앙상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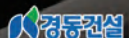
후원  부산광역시

 부산문화재단

 BNK 부산은행

 SK 증권

티켓 전석 1만원(학생 5천원)

 경동건설

 문화

 부산문화재단

문의 010-9336-2687

본 사업은 2025년 부산광역시, 부산문화재단 <부산문화예술지원사업>으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제44회

부산전국사진촬영대회

| 촬영일시 | 2025. 09. 20(토) 10:00

| 행사장소 | 해운대 송림공원

| 접수 마감 | 2025. 10. 27(월) 17:00 도착분 (사협 입회접수 있음)

작품내용

- ① 당일 출연 모델을 중심으로 촬영한 작품
- ② 당일 해운대 해수욕장 주변의 관광자원 및 생활상을 촬영한 작품

응모방법

- 참가자격 : 일반 사진 애호가 및 사진 동호인
- 출품규격 : 11" × 14" 컬러 및 흑백사진 작품
- 참가비 : 1인당 3만원 (출품표 미구입자는 출품과 동시 납부 가능)
- 출품수 : 1인당 4점 이내
- 출품방법 : 작품 뒷면에 성명, 제목, 전화번호, 주소를 명기한 출품표 부착
- 접수처 : 우편번호(48501) 부산광역시 남구 용소로78(대연동) 부산예술회관 405호 (사)한국사진작가협회 부산광역시지회

시 상

금상 1점	은상 2점	동상 3점	가작 5점	장려상 5점	입 선
협회 이사장상장 및 상금 100만원	부산광역시지회장 상장 및 상금 각 50만원	부산광역시지회장 상장 및 상금 각 20만원	부산광역시 지회장 상장	부산광역시 지회장 상장	부산광역시 지회장 상장 (출품작의 20% 이내)

※ 위 시상내역 중 일부 변경될 수도 있음

시상 및 심사·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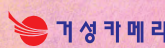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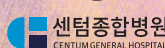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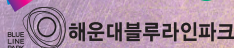
- 심사일시 및 장소 : 2025년 10월 31일(금) 14:00 부산예술회관 4층 연습실
- 심사발표 : 2025년 11월 3일(월) 사협본부 홈페이지 (www.pask.net) 부산광역시지회 홈페이지 (www.paskbs.com)
- 시상일시 및 장소 : 2025년 12월 2일(화) 14:00 부산예술회관 3층 전시실
- 전시기간 및 장소 : 2025년 12월 2일(화) ~ 12월 5일(금) 부산예술회관 3-4층 전시실

유의사항

- 출품작(입상 및 입선작, 낙선작)은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출품작의 사용은 본 촬영대회에서만 사용하고, 초상권에 관한 문제는 전적으로 출품자에게 그 책임이 있음.
- 사진저작권은 출품자 본인에게 있으나, 작품 사용권은 주최측에 있으며, 공익 목적으로 수상작을 복제, 배포, 전시, 공중송신에 사용할 수 있음.
- 입상 및 입선작은 한국사진작가협회 입회접수 인정, 작품집 증정(입상자는 반드시 시상식에 참여 하여야 함)
- 입상, 입선작이 합성사진 또는 과도한 사진 보정으로 판명되면 상권이 취소되며, 시상금은 반환 해야함. (확인을 위하여 원본파일을 제출 요구할 수 있음)
- 주최측이 행사를 취소할시 접수비는 전액 반환함.
- 한국사진작가협회 문예작 심의 규정 및 본 요강에 정한 사유에 의거 상권이 취소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출품자가 자의적 요구에 의한 상권취소는 불가함.
- 입상 및 입선작은 심사발표일로부터 7일 이내 출력 파일을 제출하지 않을시 상권이 취소됨. (해상도 3500pixels 이상 jpg 파일로 주최측이 지정한 이메일 또는 웹하드에 제출)

●주 최·주 관 : 한국사진작가협회 부산광역시지회

●후 원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한국사진작가협회 부산광역시지회 부산예술문화재단총연합회



부산예술회관은

공연장, 전시실, 회의실, 연습실을 실비로 대여하고 있습니다.

부산예술회관은

다양한 문화예술인들이 순수한 열정과 참여로
대중과 소통하고 교류하며 만나는 곳입니다.
문화적 향유를 제공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서
공연, 전시, 문화예술 전반을 아우르는 무한한 창작공간이 되도록
다양한 즐거움과 행복 문화를 제공합니다.

부산예술회관 대관시설 면적

공연장	597.56㎡ (240석)		
회의실	87.62㎡	3층 전시실	122.57㎡
4층 전시실	116.32㎡	4층 연습실	102.12㎡
2층 연습실	94.05㎡	1층 연습실	52.62㎡
지하주차장	약 60대 주차 가능		

부산예술회관 홈페이지

www.bsart.or.kr

대표전화 051) 631-1377

대관문의 051) 612-1376



공연장 / 전시장 / 회의실 / 예술아카데미 / 야외광장

SU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p>1</p> <p>문아트스튜디오 제3회 문아트 그림 전시회 (3층 전시장) 010-5629-6235</p> <p>웰빙댄스(4층 연습실) 10시-11시30분</p>	<p>2</p> <p>문아트스튜디오 제3회 문아트 그림 전시회 (3층 전시장) 010-5629-6235</p> <p>댄스포츠(4층 연습실) 10시-10시50분 라인댄스(4층 연습실) 11시-11시50분 평방노래교실(1층 공연장) 13시30분-15시30분 부채춤 교실(4층 연습실) (예정)17시30분-19시</p>	<p>3</p> <p>문아트스튜디오 제3회 문아트 그림 전시회 (3층 전시장) 010-5629-6235 (오전, 오후)건축가협회 건축(대안)전시회 (오전)부산현대미술관 전시회 051)631-4111</p> <p>너도나도 방송댄스(4층연습실) 10시-11시50분 즐거움 가요교실(2층 연습실) 10시30분-12시 아랑고고장구(2층연습실) 13시-14시30분 가곡교실(2층연습실) 14시30분-16시 점심버스킹</p>	<p>4</p> <p>문아트스튜디오 제3회 문아트 그림 전시회 (3층 전시장) 010-5629-6235</p> <p>(오전, 오후)부산문인협회 부산문인대학 051)632-5888</p> <p>사자아카데미 (4층 회의실) 10시-11시50분 댄스포츠(4층 연습실) 10시-10시50분 라인댄스(4층 연습실) 11시-11시50분 한국무용 교실 심화반 (4층 연습실) 13시-14시50분 한국무용 교실 기초반 (4층 연습실) 16시-17시50분</p>	<p>5</p> <p>부산문인협회 제3회 부산문학상 시상식 051)632-5888, 13시</p> <p>문아트스튜디오 제3회 문아트 그림 전시회 (3층 전시장) 010-5629-6235</p>	<p>6</p> <p>문아트스튜디오 제3회 문아트 그림 전시회 (3층 전시장) 010-5629-6235</p>
<p>7</p> <p>아름양상블 제3회 정기연주회 010-2918-0010, 18시</p> <p>문아트스튜디오 제3회 문아트 그림 전시회 (3층 전시장) 010-5629-6235</p>	<p>8</p> <p>문화가 있는 날 문학의 향기 (시화 전시 및 캘리그래피 시 쓰기)의 심리치료) 051)631-1377</p> <p>웰빙댄스(4층 연습실) 10시-11시30분</p>	<p>9</p> <p>문화가 있는 날 - 문학의 향기 (시화 전시 및 캘리그래피 시 쓰기의 심리치료) 051)631-1377</p> <p>(오후)부산시진작가협회 제3회부산예술제 사회화원전 051)631-4111</p> <p>댄스포츠(4층 연습실) 10시-10시50분 라인댄스(4층 연습실) 11시-11시50분 평방노래교실(1층 공연장) 13시30분-15시30분 부채춤 교실(4층 연습실) (예정)17시30분-19시</p>	<p>10</p> <p>문화가 있는 날 - 문학의 향기 (시화 전시 및 캘리그래피 시 쓰기의 심리치료) 051)631-1377</p> <p>너도나도 방송댄스(4층연습실) 10시-11시50분 즐거움 가요교실(2층 연습실) 10시30분-12시 아랑고고장구(2층연습실) 13시-14시30분 가곡교실(2층연습실) 14시30분-16시 점심버스킹</p>	<p>11</p> <p>문화가 있는 날 - 문학의 향기 (시화 전시 및 캘리그래피 시 쓰기의 심리치료) 051)631-1377</p> <p>(오전)부산문인협회 부산문인대학 051)632-5888</p> <p>사자아카데미 (4층 회의실) 10시-11시50분 댄스포츠(4층 연습실) 10시-10시50분 라인댄스(4층 연습실) 11시-11시50분 한국무용 교실 심화반 (4층 연습실) 13시-14시50분 한국무용 교실 기초반 (4층 연습실) 16시-17시50분</p>	<p>12</p> <p>문화가 있는 날 문학의 향기 (시화 전시 및 캘리그래피 시 쓰기)의 심리치료) 051)631-1377</p>	<p>13</p> <p>문화가 있는 날 문학의 향기 (시화 전시 및 캘리그래피 시 쓰기)의 심리치료) 051)631-1377</p>
<p>14</p> <p>부산연예예술인협회 부산항해양가요제 예선 051)646-7343, 13시</p> <p>문학의 향기 (시화 전시 및 캘리그래피 시 쓰기)의 심리치료) 051)631-1377</p>	<p>15</p> <p>예술의존적 051)631-1377, 11시</p> <p>부산여성 미술협회 부산여성미술협회전 (3층 전시장) 010-3385-5801 010-8492-2266</p> <p>웰빙댄스(4층 연습실) 10시-11시30분</p>	<p>16</p> <p>부산여성 미술협회 부산여성미술협회전 (3층 전시장) 010-3385-5801 010-8492-2266</p> <p>댄스포츠(4층 연습실) 10시-10시50분 라인댄스(4층 연습실) 11시-11시50분 평방노래교실(1층 공연장) 13시30분-15시30분 부채춤 교실(4층 연습실) (예정)17시30분-19시</p>	<p>17</p> <p>부산여성 미술협회 부산여성미술협회전 (3층 전시장) 010-3385-5801 010-8492-2266</p> <p>너도나도 방송댄스(4층연습실) 10시-11시50분 즐거움 가요교실(2층 연습실) 10시30분-12시 아랑고고장구(2층연습실) 13시-14시30분 가곡교실(2층연습실) 14시30분-16시</p>	<p>18</p> <p>부산여성미술협회 부산여성미술협회전 (3층 전시장) 010-3385-5801 010-8492-2266</p> <p>(오전)부산문인협회 부산문인대학 051)632-5888</p> <p>사자아카데미 (4층 회의실) 10시-11시50분 댄스포츠(4층 연습실) 10시-10시50분 라인댄스(4층 연습실) 11시-11시50분 한국무용 교실 심화반 (4층 연습실) 13시-14시50분 한국무용 교실 기초반 (4층 연습실) 16시-17시50분</p>	<p>19</p> <p>부산여성미술협회 부산여성미술협회전 (3층 전시장) 010-3385-5801 010-8492-2266</p> <p>(오전)부산문인협회 부산문인대학 051)632-5888</p>	<p>20</p> <p>부산여성미술협회 부산여성미술협회전 (3층 전시장) 010-3385-5801 010-8492-2266</p>
<p>21</p> <p>PNQ엔터테인먼트 2025퓨전 전국투어콘서트 IN부산 010-3424-1581, 14시</p> <p>부산여성 미술협회 부산여성미술협회전 (3층 전시장) 010-3385-5801 010-8492-2266</p>	<p>22</p> <p>문화가 있는 날 진사우회 (진사우회 마흔일곱번째 회원전)(3층, 4층 전시장) 051)631-1377</p> <p>웰빙댄스(4층 연습실) 10시-11시30분</p>	<p>23</p> <p>문화가 있는 날 진사우회 (진사우회 마흔일곱번째 회원전) (3층, 4층 전시장) 051)631-1377</p> <p>댄스포츠(4층 연습실) 10시-10시50분 라인댄스(4층 연습실) 11시-11시50분 평방노래교실(1층 공연장) 13시30분-15시30분 부채춤 교실(4층 연습실) (예정)17시30분-19시</p>	<p>24</p> <p>문화가 있는 날 - 드로마 (배달의 곰마추어의 음악을 신숙해 달) 051)631-1377, 17시</p> <p>문화가 있는 날 - 진사우회 (진사우회 마흔일곱번째 회원전) (3층, 4층 전시장) 051)631-1377</p> <p>너도나도 방송댄스(4층연습실) 10시-10시50분 즐거움 가요교실(2층 연습실) 10시30분-12시 아랑고고장구(2층연습실) 13시-14시30분 가곡교실(2층연습실) 14시30분-16시</p>	<p>25</p> <p>문화가 있는 날 - 진사우회 (진사우회 마흔일곱번째 회원전)(3 층, 4층 전시장) 051)631-1377</p> <p>(오전)부산문인협회 부산문인대학 051)632-5888</p> <p>사자아카데미 (4층 회의실) 10시-11시50분 댄스포츠(4층 연습실) 10시-10시50분 라인댄스(4층 연습실) 11시-11시50분 한국무용 교실 심화반 (4층 연습실) 13시-14시50분 한국무용 교실 기초반 (4층 연습실) 16시-17시50분</p>	<p>26</p> <p>부산연예협회 가수위원회 제3회 홀로 어르신 어울림 효 한마당 051)644-3028, 13시</p> <p>문화가 있는 날 진사우회 (진사우회 마흔일곱번째 회원전)(3층, 4층 전시장) 051)631-1377</p>	<p>27</p> <p>그레시첸버 오케스트라 제2회 정기연주회 010-3863-6461, 16시</p> <p>문화가 있는 날 진사우회 (진사우회 마흔일곱번째 회원전)(3층, 4층 전시장) 051)631-1377</p>
<p>28</p> <p>문화가 있는 날 진사우회 (진사우회 마흔일곱번째 회원전)(3층, 4층 전시장) 051)631-1377</p>	<p>29</p> <p>웰빙댄스(4층 연습실) 10시-11시30분</p>	<p>30</p> <p>댄스포츠(4층 연습실) 10시-10시50분 라인댄스(4층 연습실) 11시-11시50분 평방노래교실(1층 공연장) 13시30분-15시30분 부채춤 교실(4층 연습실) (예정)17시30분-19시</p>				



ART BUSAN MONTHLY VOL.243

2025 SEPTEMBER 9

CONTENTS

권두칼럼

08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한 세 가지 전략 _ 마점래

에세이

- 10 부유한 후원, 전문적인 메세나, 촘촘한 기부 _ 정혜주
- 14 부산예술회관 문화가 있는 날 - 아띠클래식 미니 콘서트 _ 박준영
- 16 부산예술회관 문화가 있는 날 - 부산남사회포토클럽 사진전
- 18 제29회 한국해양문학제
- 20 제32회 부산국악대전
- 22 2025 바다미술제 - 물 위를 걷는 물결들
- 24 2025 부산국제사진제
- 26 2025 부산국제건축제
- 28 2025 부산국제공연예술마켓
- 30 국립해양박물관 - 광복 80주년 기념 특별기획전 수군, 해전
- 32 한국국중꽃박물관 - 손 끝에 핀 누비꽃
- 34 도모현 - 슈타이들 북 걸쳐 | 부산
- 36 무지카비바 챔버앙상블 제37회 정기연주회
- 37 다빈예술공간협회 동아시아미술교류전
- 38 맥화랑 - 10-200, 행복한 그림전
- 39 제8회 영남춤축제 연계 전시 - 춤추는레고



표지_황중환

2020 부산예술상 수상
2007 대한민국문화포장 수훈
부산비엔날레 운영위원장 역임
부산시립미술관 운영위원 역임
대한민국미술대전 심사위원 역임
혁동인회 회장, 한국미술협회, 부산미술협회,
부산환경미술협회 고문, 부산미술원로작가회 회원



포토에세이

40 봉평 메밀 _ 김재문

수필의 들

44 보라색 수탉 _ 송명화

인물포커스 I

48 극단 판플 대표 양재영 _ 백근영

인물포커스 II

50 사진가 성현미 _ 정혜주

예술가열전 236

52 플루티스트 박찬엽 _ 박준영

손으로 쓴 문학

56 시인 친구에게 _ 공옥식

들여다보기

58 음악/ 조선버전 <빛나는 밤 : 햇불> _ 김용호

60 문화/ 넷플릭스 <케이팝 데몬 헌터스> _ 백근영

기획연재

62 건축과 서예XV - 해월정과 고천 배재식 _ 이현주

66 <케이팝 데몬 헌터스>

열풍을 갈아먹는 담배꽂초 투기행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_ 심수화

70 역사와 함께 읊어보는 부산가요

- 제1화 「연락선은 떠난다」와 관부연락선 _ 이용득

74 예총-전사-공연 뉴스

78 시간 안내

80 메세나 광장 & 정기구독회원 모집

2025년 9월 통권 243 <http://www.artpusan.or.kr>

1997년 10월 15일 정기간행물 등록(2011년 8월 31일 변경등록번호 부산 라-01255)

발행일_ 2025년 8월 27일 발행처_ 사단법인 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주소_ 부산광역시 남구 용소로 78 부산예술회관

전화_ 051)612-1372 팩스_ 051)631-1378 이메일_ artbusan1997@naver.com

발행인 겸 편집인_ 오수연 편집고문_ 김두진(건축가회), 강명옥(국악협회), 남선주(무용협회), 박해숙(문인협회), 최장락(미술협회), 강종관(사진작가협회),

이정남(연극협회), 안규성(연예예술인협회), 권성은(음악협회)

편집기자_ 박준영, 정혜주 객원기자_ 백근영 디자인_ 두손컴 제호_ 김종문

※ 본지는 부산광역시로부터 발간비 지원을 받습니다.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부산예총의 의사와 다를 수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한 세 가지 전략

글_ 마점래 (주)엠오티 대표이사

자동차 산업은 지금 역사적 변곡점 위에서 있다. 내연기관 중심의 구조가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전기차(EV), 자율주행차, UAM 등 미래 모빌리티 시대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전기차의 등장은 단순한 기술 혁신을 넘어 사회와 자본, 그리고 자연의 관계를 새롭게 재편하는 거대한 변화를 가져왔다.

이제 자동차는 기계적 산물의 범주를 벗어났다. 전기차는 환경 문제의 해법이자 지속 가능한 미래를 설계하는 핵심 동력으로 자리 잡았다. 나아가 데이터와 에너지, 공간과 경험이 융합된 움직임이 플랫폼으로서 우리의 일상과 도시뿐만 아니라 산업 패러다임 전반을 바꾸고 있다.

변화의 속도가 인간의 적응 능력을 앞지르는 시대, 엠오티Mecca Operation Technology는 언제나 한발 앞선 혁신으로 변화에 대응해 왔다. 전기차 배터리, 모듈, 팩 등 핵심 부품 제조 장비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확보하고, 세계 최초로 Laser Welding 전용설비를 개발해 글로벌 톱티어 기업들과 협력하며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가능성을 넓혀가고 있다. 엠오티가 지켜온 도전정신·창조정신·개척정신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정신을 바탕으로 오늘날 우리가 갖춰야 할 세 가지 전략을 예술적 관점과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새로운 트렌드에 대한 기술 개발이다.

산업 전반에서는 자동화와 인공지능이 핵심 변화를 이끌고 있다. 사회적 차원에서는 끊임없이 학습하고 적응하는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테슬라가 좋은 사례이다. 단순한 전기차 제조 기업을 넘어 자율주행, 로봇, AI 등 미래 산업 전반에서 혁신을 선도하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예술 분야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미디어 보드, 미디어 파사드를 활용한 미디어아트는 메타버스, NFT와 같은 신기술과 결합해 기존에 없던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기술은 생산성이라는 단일한 목적을 넘어서 예술적 감수성과 결합해 깊은 감동과 영감을 제공한다. 이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는 변화를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창의성과 기술의 융합을 통해 변화를 능동적으로 주도하는 자세라 할 수 있다.

둘째, 지속 가능한 가치 창출이다.

산업 생태계는 기술 경쟁을 넘어 환경과 사회적 책임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시대로 접어들었다. 친환경 소재의 활용과 탄소 배출 저감 기술 등은 이제 기업의 생존과 직결되는 필수 조건이다. 엠오티는 능동적인 환경경영을 실천하며, 원료 공급에서 생산·사용·폐기·재활용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자원과 에너지의 지속 가능한 활용, 그리고 오염물질 감축에 힘쓰고 있다. 이는 단순한 비용 절감이 아닌 인류 공동의 미래를 위한 책임 있는 선택이다.

예술 역시 지속 가능성의 맥락에서 중요한 영감을 제공한다. 현대 예술은 자연환경과 사회적 맥락을 고려해 사람들의 감정을 움직여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낸다. '지속 가능한 예술 Sustainable Art'은 사회적 문제 해결의 촉매제로 작동하며 기업이 추구하는 지속 가능 경영과도 맞닿아 있다. 기술과 예술이 함께할 때 미래 가치는 더욱 풍부해진다.

셋째는 글로벌 협력과 개방성이다.

기술과 시장은 더 이상 국경 안에 머물지 않는다.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은 협력을 통해 성장하며, 다양한 파트너십은 새로운 기회로 연결된다. 엠오티는 세계적인 기업들과 긴밀히 협업하며 글로벌 모빌리티 생태계 속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동시에 지식과 경험을 나누며 산업의 건강한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요즘 한국 전통문화를 소재로 한 애니메이션이 국가 간의 경계를 허물고, 예술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며 세계인의 공감을 얻고 있다. 창조성에서 발현되는 예술은 가장 개방적이고 진보적인 영역이고, 한 사회나 개인의 건전성과 발전 가능성을 가늠해 보는 중요한 지표가 되기도 한다. 따라서 기업도 지역의 예술문화의 움직임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글로벌 기업들이 국내외 예술기관과 협력하며 세계 무대로의 전개를 모색하는 것은 단순한 후원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을 향한 전략이자 시대적 요구이기도 하다.

현대 사회는 '경계 없는 풍경'을 만들어가고 있다. 과거에는 뚜렷했던 구분 선들이 점점 희미해지며 산업과 예술, 기술과 문화가 서로의 영역을 넘나든다. 변화의 속도와 규모가 그 어느 때보다 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구분이 아닌 연결이며 상생적인 진화이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새로운 기술 혁신과 지속 가능한 가치, 그리고 개방적 협력을 통해 더 큰 미래를 열어가야 한다. 엠오티는 글로벌 모빌리티 산업의 혁신 리더로서 지역 예술문화와 호흡하며, 지속 가능한 미래를 설계하는 든든한 동반자로 성장해 나갈 것이다.

부유한 후원, 전문적인 메세나, 충출한 기부

글_정혜주

러시아 마린스키 발레단에서 수석무용수로 활약 중인 발레리노 김기민은 한 TV 프로그램에서 프랑스의 할머니 팬으로부터 거액의 유산을 상속받았다고 밝혔다. 김기민은 목발을 짚고도 무대를 찾았던 연로한 팬을 기억하며 “그분은 제가 어디를 가든 따라와서 공연을 보셨다. 미국에 가면 미국에서 공연을 관람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그는 이 유산을 다시 기부하려고 생각 중이다.

여기서 인상적인 점은 문화예술을 위한 바람직한 후원 문화라는 데 있다. 이 사례는 자신이 애호하는 예술 분야에 열정적으로 참여해 무대에 감동하고, 오랜 시간 예술가가 성장하는 과정을 지켜보고 응원하며, 결국 예술가 개인의 창작 활동을 신뢰하고 인정하는 ‘예술에 대한 헌신적인 개인 후원’이라 할 수 있다.

후원은 예로부터 예술가의 생계 유지와 창작 지속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였다. 과거의 후원 활동은 주로 부유한 개인이나 국가로부터 이루어졌다면, 현대에는 다양한 형태로 발전했다.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이익을 취하지 않는 필랜스로피(philanthropy), 예술가 개인에 대한 패트로니지(patronage), 기업 차원의 메세나(mecenat)와 상호 이익을 기반으로 한 파트너십(partnership), 그리고 마케팅 효과를 기대하는 스폰서십

sponsorship 등이 있다. 시대와 경우에 따라 후원의 형태는 달라져도 예술가들이 작업을 지속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돕는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부유한 후원

르네상스 시대에는 부유한 개인이나 통치자에 의한 예술가의 후원인 패트로니지가 이뤄졌다. 이것은 미술시장에서 후원자가 예술가를 고용해 봉급을 지급하는 형태이거나 특정 작품을 의뢰해 작업 기간 동안 예술가를 후원하는 형태로 존재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메디치가의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 빈치, 보티첼리 등 개별 예술가들에 대한 후원이 이에 해당한다.

예술 후원의 역사에 있어 20세기 전설적인 여성 컬렉터이자 예술 후원자인 페기 구겐하임(1898-1979)을 빼놓을 수 없다. 페기 컬렉션에는 무려 100여 명 화가와 326점에 달하는 작품이 포함돼 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도 하루에 한 점 꼴로 작품을 구입했던 그는 “누군가는 한 시대의 미술을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영화 <잭스폴록>에서 피카소를 능가하는 예술가가 등장했다는 말에 작업실까지 찾아가 작품을 살피는 이 또한 페기 구겐하임이었다. 그의 지원이 없었다면 달리도, 뒤상도, 잭스폴록도 없다



Peggy Guggenheim at home with Jackson Pollock in front of his Mural(1943), New York, ca. 1946 © 2025 The Solomon R. Guggenheim Foundation

는 말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니다. 페기 구겐하임은 예술품 구입, 전시회 주최, 예술가 지원 등을 통해 자신의 예술 후원 철학을 실행했으며, 결국 서양 예술의 중심을 유럽에서 미국으로 이동시켰고 미국 현대예술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 찰스 사치 또한 개인 후원의 힘을 보여준다. 그는 세계 현대미술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사치갤러리를 1985년에 설립했다. 사치갤러리는 1992년부터 본격적으로 동시대 영국미술을 소개했고, young British artists(이하 yBa)를 결성해 영국의 신진 작가들을 후원하고 작품을 대량으로 컬렉션하기 시작했다. yBa 일원이었던 데미안 허스트는 죽음의 매개체로 죽은 상어 작품의 아이디어를 찰스 사치에게 제시했고, 찰스 사치가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살아 있는 자의 마음속에 있는 죽음의 육체적 불가능성」(1991)이라는 현대미술에 있어 상징적인 작품을 완성했다. 현재까지도 그는 무명의 가능성 있는 젊은 작가들을 발굴해 전폭적인 후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렇듯 한 명의 후원자는 한 시대의 예술을 연다.

전문적인 메세나

메세나는 로마 제국 초기 호라티우스, 베르길리우스 등의 시인들을 후원한 정치가 가이우스 킬리니우스 마이케나스 Gaius Clinius Maecenas의 이름에서 유래한다.

1967년 미국에서 기업예술후원회가 발족하면서 이 용어

를 처음 쓴 이후, 각국의 기업인들이 메세나협회를 설립하면서 기업의 지원 및 후원을 일컫는 말로 사용하고 있다. 이후 프랑스의 상공업 메세나협회(ADMICA) 등을 비롯해 유럽 각국에서 다양한 예술지원의 움직임이 일어났고, 아시아에서는 일본을 중심으로 1990년대부터 활발해지기 시작했다.

한국은 1994년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연합회 등 경제 5개 단체의 주도로 한국기업메세나협의회(현 한국메세나협회)를 설립했다. 2013년 말에는 '문화예술 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입법되었고,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문화예술후원 매개기관'이라는 개념이 도입됐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는 창의성을 키우는 문화예술 활동이 사회 전반에 확산될 필요성에 따라 2012년 '예술나무운동'을 발족했다. 예술나무운동은 기부금 사업을 비롯해 기업과 예술을 매칭(파트너십 체결)시키고, 문화예술후원 인증제도를 통해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진행 중이다. 기업이 거래처 등에 연극, 뮤지컬, 오페라, 전시회, 운동경기 등 문화비로 지출 가능한 '문화기업업 무추진비'를 적극 활용해 기업 이미지를 제고할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예술 수요 창출을 일으키기 위한 캠페인도 이어가고 있다.

사실 글로벌 명품 기업과 국내의 대기업들은 예술지원에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고급스러운 미술관과 공연장을 짓고, 신진작가를 선정해 후원하며 유명작가와 협업해 새로운 제품을 디자인한다. 이러한 기업들의 메세나 활동은 예술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예술가의 가치를 인정하기에 가능한 일이다.

특히 스포츠 분야에서는 많은 기업들이 스포츠마케팅을

통해 상당히 공격적인 전략을 취하고 있다. 기업은 선수와 팀과의 스폰서십을 통해 기업 이미지와 브랜드 인지도를 향상시키는 효과를 얻는다. 2014인천아시안게임, 2018평창동계올림픽과 같은 국가 주요 행사뿐만 아니라 프로골퍼와 e스포츠 국가대표 등을 후원한 대한항공이 대표적 기업이다.

문화예술 후원과 관련한 주요 담론을 다룬 『문화예술 후원론』의 저자 김진각은 위대한 아티스트는 후원의 결과물이라 강조한다. 그는 예술가 개인의 타고난 재능에 더해진 피나는 노력과 열정이 위대한 예술가 탄생을 알리는 서막일 수는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예술가의 완결로 결과지어 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결국 완성도가 높은 예술 작품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환경적 요소가 매우 중요하며, 여기에는 반드시 ‘후원’이 뒤따른다.

국가지원을 받은 사례로는 소설가 한강을 지목한다. 한강은 창작 활동을 본격화한 1998년부터 지금까지 국가문화예술지원기관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통해 작품 발간지원 사업, 해외레지던시프로그램 참가 지원 사업 등 총 18건에 7,700만 원을 지원받았다. 정부가 한강의 후원자 역할을 한 것이다.

2022년 세계적 권위의 미국 반 클라이번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최연소 우승한 임윤찬은 현대차정몽구재단의 후원을 받았다. 한국클래식의 든든한 버팀돌 역할을 하고 있는 금호문화재단은 ‘영재는 기르고 문화는 가꾸고’라는 비전 아래, 탁월한 재능을 가진 음악도들의 성장을 돕는 ‘영유지선 지원사업’을 운영한다.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조성진은 2009년, 만 11세 나이로 금호영재콘서트를 통해 데뷔했다.

한국메세나협회는 국내 500대 기업 및 기업 출신 문화재단 등 729개사를 대상으로 2023년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 현황 조사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기업의 문화예술 지원 총액은 2,087억 8,500만 원으로 증가했다. 지원 분야 또한 인프라, 미술·전시, 클래식, 문화예술교육과 비

주류·다원예술, 국악·전통예술, 영상·미디어, 연극, 문학, 뮤지컬, 무용 등 다양하게 확대하고 있다. 2023년 3월, 정부가 발표한 ‘문화로 여는 지방시대, 지역문화정책 추진 전략’은 지역의 문화예술 활성화를 도모해 지역 소멸에 대응하고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로, 대기업 중심의 메세나 활동을 중소기업으로까지 확산시키며 지역 예술에 활기를 불어 넣고 있다.

정부의 정책 아래 전문적인 메세나 문화가 자리 잡으면서 이제 국가를 대표하는 예술가의 탄생은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었다. 하지만 정부의 지원과 기업의 후원은 소수의 예술가에게만 집중되기 때문에 한계점이 존재한다. 소외된 예술가들은 결국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불균형한 무대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민간 등 외부 후원 문화 확산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촛촛한 기부

프랑스와 영국 등 유럽 국가의 대부분이 문화예술 부문의 재원 조성에 있어 공공의 역할을 강조해왔다면, 미국은 민간 비영리단체(Non-Profit Organization, 이하 NPO)가 담당한다. 특히 문화예술 부문의 경우 전체 예산 중 기부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45%에 달한다. 이것은 미국의 순수 예술 단체 대



스미소니언박물관-Constitution Ave NW & 10th St NW, Washington D.C.-2009-5678

부분이 정부가 아닌 부유한 개인 및 기업 후원으로 설립된 까닭이기도 하다. 이들은 개인의 기증과 기부를 통해 컬렉션을 형성하고 기관을 운영한다. 이처럼 미국사회는 기부 문화가 오래된 뿌리와 같이 문화예술의 바탕이 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개인 기부 비율이 높은 이유로 민간 부문 시스템 활성화와 전략적이고 촘촘한 그물망 시스템 구축을 꼽는다. 대규모 재정 기부를 할 수 있는 사람 ‘Wealth’, 자원 조성 전문가 ‘Work’, 기관과 고객을 효과적으로 연결해 줄 수 있는 지역 인사 ‘Weight’, 전문지식을 제공하는 경영·법률·회계·교육 전문가 ‘Wisdom’까지 ‘4W 원칙’에 따라 멤버십 및 후원 제도로 기부금 수입 비중을 높이고 있다. 스미소니언박물관과 메트로폴리탄미술관 등이 이러한 제도, 조직, 시스템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미국의 센트럴 파크는 미국 전역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찾는 최고의 랜드마크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센트럴 파크 또한 개인 기부와 기업의 후원을 통해 운영된다는 점이다. 개인 기부자가 7,500달러(약 1,000만원)를 기부하면 원하는 문구를 금속판에 새겨 벤치에 붙여준다. 1986년 시작된 어덱트 벤치(Adopt-A-Bench, 기부벤치) 기금으로 설치된 벤치 개수는 전체 벤치의 3분의 1을 넘어섰다. 기부가 단지 금액으로 주고 받는 일회적인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눔으로써 기부자의 역할에 더 힘을 보태고 문화예술을 향한 애호가를 늘리는 선순환적 구조로 이어진다.

최근에 들어서는 예술 후원이 공공의 영역이거나 기업의 특권이 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참여 가능한 문화예술 프로젝트 ‘크라우드펀딩’ 사업도 활성화되고 있다. 크라우드펀딩에서는 예술가와 문화단체가 자신들의 프로젝트를 플랫폼에 올려 대중에게 직접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때 단순한 기부 형식으로 끝나지 않고, 대중은 자신이 선호하는 예술가에게 직접 후원함으로써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알 수 있고, 예술가는 대중의 피드백을 수용하는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신뢰를 구축한다. 이러한 방식은 새로운



어덱트 벤치(Adopt-A-Bench, 기부벤치)

예술세계를 열 수 있게 하여 문화예술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대중과의 연결을 기반으로 예술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애착을 가질 수 있게 한다.

문화예술을 위한 기부문화는 이제 선택사항이 아니라, 예술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다. 막대한 정부의 지원이 확대되고, 공공의 손길이 미치지 않고 예술의 자력만으로는 영위하기 힘든 분야를 지원하는 메세나의 역할이 늘어나야 한다. 또, 예술가뿐만 아니라 무대 뒤에서 예술을 위해 조력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응원받을 수 있는 예술 후원이 이루어진다면, 예술은 지치지 않고 우리 모두의 일상을 풍요롭고 공동체의 협력과 소통을 증진시켜 건강한 사회를 조성하는 데 앞장설 수 있을 것이다.

부산예술 발전을 위한 후원 문화 확산을 위해, 월간 『예술부산』에서는 e-book 발간 기금 후원자를 모집합니다. e-book 발간 기금은 월 1만 원부터 가능하며, 후원자님의 성함 또는 브랜드명으로 e-book이 발행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부산예술회관 문화가 있는 날 아띠클래식 미니 콘서트

2025. 7. 30. 오후 7시 부산예술회관 공연장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열린 7월 30일 공연은 클래식에 대한 고정관념을 신뜻하게 깨뜨리는 무대였다. 전국 연간 250회 이상 출연하며 클래식 성악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아띠클래식]이 부산예술회관을 찾았다. 익숙한 클래식 곡에 감각적인 무대 효과를 더하고, 장르와 세대를 넘나드는 선곡과 무대 매너로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은 이번 콘서트는, 단순한 음악회를 넘어 하나의 공연 예술 경험으로 자리매김했다.

무대는 시작부터 관객의 시선을 압도했다. 스모그 머신, 버블 머신 등 다양한 장치가 어우러지며, 클래식 외적인 요소에도 얼마나 정성을 기울였는지를 보여주었다. 기술감독 강찬하를 비롯한 무대팀의 치밀한 준비가 돋보이는 순간이

었다. 공연의 문을 연 첫 곡에서는 소프라노 고은솔, 바리톤 정건우, 배우 박시원이 함께 무대에 올라 앙상블의 조화를 들려주었고, 이후로는 솔로와 앙상블을 오가며 풍성한 무대를 이어갔다.

「Champions」, 「내 나라 대한」, 「Volare」 등 클래식, 팝페라, 국악 등 다양한 장르의 곡들이 숨 가쁘게 이어졌지만, 장르가 다양하다고 해서 공연의 흐름이 느슨하거나 산만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각 곡은 저마다의 색깔과 정서를 뚜렷이 드러내며 자연스럽게 이어졌고, 출연진들은 그 감정의 결을 섬세하게 끌고 나갔다.



이번 공연의 핵심은 '관객과의 거리 좁히기'였다. 공연 내내 출연진은 무대에 머무르지 않고 직접 객석 사이를 누비며 관객과 눈을 맞추고 하이파이브를 나누는 등, 물리적 거리를 허물며 적극적인 소통을 시도했다. 특히 이번 무대에는 아동 관객의 비중이 높았다. 어린이 관객을 특별히 겨냥한 기획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중간에 등장한 비눗방울 연출은 큰 호응을 자아냈다. 한 가지에 오래 집중하기 어려운 아이들의 특성을 고려할 때, 공연 집중도가 다소 흐트러질 수 있는 타이밍에 등장한 비눗방울은 흥미를 다시 끌어당기는 데 효과적인 장치였다.

공연과 공연 사이의 쉬는 시간, 아띠클래식은 관객과의 소통을 이어갔다. 소정의 상품이 걸린 깜짝 퀴즈 이벤트는 관람객에게 또 다른 즐거움을 선사하며, 공연 전체를 관람 이상의 경험으로 완성시켰다. 단순히 '보는 공연'이 아니라, 함께 호흡하고 즐기는 무대였기에 남녀노소 모두가 미소 지을 수밖에 없었다. 공연에서는 다양한 곡들이 장르를 넘나들며 재해석되어 관객의 감성을 자극했다. 특히 앙코르곡으로 선보인 「붉은 노을」은 관객의 뜨거운 호응을 끌어내며 공연장의 열기를 최고조로 달구었다. 잊지 못할 무대가 되었음은 물론이다.

출연진들의 뛰어난 실력도 깊은 인상을 남겼다. 특히 고은솔과 정건우는 2024년 '제13회 젊음의 축제'에서 듀엣으로 대상을 수상한 바 있어 이미 실력으로 증명된 성악가들이다. 이번 무대에서는 두 사람뿐 아니라 배우 박시원이 함께 하며 트리오 구성으로 무대에 섰지만, 각기 다른 매력을 지닌 세 사람은 완벽한 호흡을 보여주며 개성 있는 음색과 높은 완성도의 무대를 선사했다. 각자의 포지션에서 선명한 존재감을 드러내는 동시에, 전체적으로는 훌륭한 앙상블을 이루며 공연의 밀도를 높였다. 단순히 노래 실력에 그치지 않고, 무대 매너와 표현력, 관객과의 감정 교류 등 모든 면에서



수준 높은 퍼포먼스를 펼쳤다. 매 장면마다 예술성과 대중성의 균형이 절묘하게 어우러지며, 관객에게 깊은 감동과 여운을 남겼다.

아띠클래식은 이번 공연을 통해 '클래식'이라는 장르의 경계를 허물고, 유연한 예술의 형태를 제안했다. 전통과 현대, 진중함과 유쾌함, 감동과 웃음이 오가는 무대는 단순한 장르의 퓨전을 넘어선, 새로운 문화 향유 방식에 대한 실험이었다. 이러한 시도는 지역 사회와 더 가까이 호흡하려는 예술가들의 진심이 전해졌기에 더욱 진정성 있게 다가왔다.

이번 공연은 '문화가 있는 날'의 취지와도 절묘하게 맞아떨어졌다. 바쁜 일상 속 잠시 쉬어가는 수요일 저녁, 누구나 쉽고 편하게 즐길 수 있는 클래식 무대가 펼쳐졌고, 시민들은 음악을 통해 일상의 활력을 재충전할 수 있었다. 아이들과 함께 공연장을 찾은 가족, 연인, 친구와 함께 온 관객들 모두가 박수와 웃음으로 객석을 채우며, 단순한 관람을 넘어 함께 공감하고 머무는 시간을 만들어냈다.

글_박준영



부산예술회관 문화가 있는 날
부산남사회포토클럽 사진전
부산 사계의 미학

2025. 8. 25. ~ 31. 부산예술회관 전시장 3·4층

사진은 순간을 담아내어 기억하는 예술이다. 사진 속 풍경은 시간의 빛과 계절의 공기를 담고, 작가의 눈과 마음을 따라 특별한 이야기를 전한다. [부산남사회포토클럽]이 기획한 '부산 사계의 미학'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의 감성 연대기다. 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회장 오수연)가 기획한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열리는 이번 전시는 부산의 문화와 일상, 사계절의 정취를 사진으로 담아냈다.

부산남사회포토클럽 소속 작가 25인의 작품으로 구성된 '부산 사계의 미학'은 부산이란 도시의 시간성과 공간성, 그리고 그 안에 스며든 감정과 기억을 사진이라는 매체로 남기고자 하는 진심이 담겨 있다. 작품은 바다와 도시, 사람과 자연을 포괄하며, 부산 시민의 일상과 삶의 풍경을 다양한 시선으로 담아냈다.



2



3

최인숙의 「송도의 아침바다」는 수평선 위로 펼쳐진 푸른 하늘과 아침 햇살을 머금은 잔잔한 바다를 포착해 하루의 시작을 따뜻하게 비춘다. 유창근의 「광안대교」는 광안대교의 불빛을 마치 고래의 꼬리처럼 형상화하여, 도시 야경의 웅장한 아름다움을 담아냈다. 이태호의 「시민공원의 야경」은 밤의 정적 속에서 은은히 빛나는 조형물들과 시민공원의 풍경을 조화롭게 담아내며, 부산의 또 다른 얼굴을 보여준다.

전시 외에도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사진 기초 교육 및 실습'을 주제로 한 예술체험 프로그램은 카메라의 이해, 구도, 빛의 활용, 촬영 기법 등을 다루는 체험으로, 초보자도 참여가 가능하고 핸드폰 촬영도 활용할 수 있어 대중적인 호응을 끌어들였다.

부산남사회포토클럽은 남구문화원 사진반 회원들로 구성된 지역 사진단체로, 꾸준한 회원전 개최와 지역 주민을 위한 장수사진 봉사활동, 각종 공모전 참여 등을 통해 지역 예술문화 발전에 기여해 왔다. 이번 전시는 단순한 사진 전시를 넘어, 관람객과의 소통과 참여를 통해 부산의 정체성을 재발견하고, 지역 사진예술의 저변을 확대하는 계기로 작용했다.

사진 한 장이 보여주는 것은 단순한 장면이 아니라, 그 순간을 살아낸 이들의 감정과 기억이다. '부산 사계의 미학'은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의 계절과 기억을 되새기게 한 전시로 남았다.

문의_010-3030-5299 / 편집실

- 1 유창근_광안대교, 6000×400, 2024
- 2 최인숙_송도의 아침바다, 6000×400, 2024
- 3 이태호_시민공원의 야경, 6000×400, 2020

제29회 한국해양문학제

2025. 8. 8. 오후 1시 ~ 6시 30분
부산예술회관 공연장



제29회 한국해양문학상 시상식

지난 8월 8일 부산예술회관에서는 부산문인협회(회장 박혜숙) 주최로 '제29회 한국해양문학제'가 열렸다. '21세기는 바다의 세기'라는 선언에 발맞춰 부산의 정체성을 해양 중심으로 확립하기 위해서 바다를 향한 인문학적 사유와 문명론적 상상력을 확장하는 논의가 이뤄졌다. 심포지엄, 특강, 시상식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이번 행사는 해양문학의 가치와 가능성을 집중 조명했다. 현장에는 박형준 부산시장, 조유장 부산시 문화국장, 오재환 부산문화재단 대표, 오은택 남구청장을 비롯한 각계 인사와 전국 문인들이 참석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제30회 한국해양문학 심포지엄
바다의 언어와 노래의 몸
-『만엽집』과 일본 해양문학의 원형적 상상력-

부산가톨릭대학교 인문학연구소 안수현 박사(문학)가 한국해양문학 심포지엄에서 바다를 생태학적·존재론적·문화사적 중심축으로 재위치시키는 새로운 문예사조 '블루 휴머니티Blue Humanities'를 소개했다. 블루 휴머니티는 2000년대 이

후 스티브 멘델로(Steve Mentz), 마르티네즈(Hester Blum) 등이 제안한 개념으로, 인문학의 시선을 바다로 확장해 해양과 인간의 관계를 학제적으로 탐구하는 연구다. 해류, 파도, 조류 등 해양의 리듬이 문학 구조와 인간의 사유 방식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강조한다. 안 박사는 '과거 바다는 경계, 횡단, 성장의 가능성이었지만, 현대에는 치유와 여유, 따뜻함의 상징으로 변모했다'며 바다 인식의 변화를 짚었다.

발표에서는 일본 고대 시가집 『만엽집(萬葉集)』을 해양문학의 원형적 텍스트로 주목했다. 『만엽집』은 8세기 중반까지 축적된 와카(和歌) 4,516수를 담은 20권의 시가집으로, 천황과 귀족뿐 아니라 농민·여성·유민까지 다양한 계층의 노래가 수록됐다. 편찬자는 대체로 오오토모노 야카모치(大伴家持, 718-785)로 알려져 있다.

안 박사는 『만엽집』 속 바다가 "노래가 건너온 길"이자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시적 언어"로 가능하며, 특히 당나라로 향하는 미노노 무라지(三野連)를 떠나보내며 가스가노 쿠라노 오비토오유(春日藏首老)가 지은 송별가와 대륙과의 교류와 혼종

성을 보여주는 시 등을 예로 들며, 바다가 단순한 자연 배경이 아니라 감정, 사유, 정체성을 생산하는 시적 장치로 작동했다고 분석했다. 또한 들뢰즈와 가타리의 개념을 인용해 『만엽집』의 '건너옴과 돌아감' 서사를 해양적 탈영토화의 구조로 해석했다. 이어 일본 신화 속 스사노오노 미코토 등 바다 관련 신화를 문화사적 관점에서 풀어내 흥미를 더했다.

안 박사는 고대 일본 시인이 감각기관 전체로 세계를 받아들이고 생생한 육화체로서 이를 시가로 전환한 존재임을 강조하며, 와카의 낭송이 감정의 물리적 강도를 전달하고 청중과 정념의 리듬을 나누는 감각적 예술이었음을 설명했다.

좌장을 맡은 임춘찬 시조시인(부산대 명예교수)은 “우리가 일본 문화를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부족한 점이 많다”라며, 한국해양문학 심포지엄의 필요성과 의의를 평가했다.

2025 한국해양문학 특강
부산 해양성 돌아보고 이어가기
-정체성을 중심으로-

한국해양문학 특강에서 국립한국해양대학교 김강식 교수가 '바다에서 본 한국사'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지구 표면의 70%는 바다이며, 대륙은 그 위에 떠 있는 섬과 같다”라며, 지구(地球)보다 '수구(水球) 또는 '해구(海球)'라는 표현이 더 적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존 역사 연구가 대륙 문명 중심에 치우쳤으며, 바다를 역사 속에서 복권시켜 인류사를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지구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부산항의 위상을 '동북아시아의 결절점이자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을 잇는 중심 관문'으로 규정했다. 부산은 대륙의 끝이 아니라 바다로 향하는 출발지이며, 전쟁 터교역자 삶의 터전이라는 세 가지 해양성 유형이 모두 작동하는 드문 도시이다. 그는 이러한 해양성이 개방성, 교류성, 혼종성, 저항성을 지닌 '이중적 해항도시' 부산의 성격을 형성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해양문화유산(patrimoine culturel maritime)의 개념을 소개했다. '해양문화유산은 바다와 접촉하며 형성된 독립적인 문화'이며 그 보존 필요성을 강조했다. 북항 개발 시기에 맞춰 부산진성 복원, 동삼동 패총 원형 복원과 종합 전시, 조선시대 왜관과 통신사선 재현 등을 구체적 활용 방안으로 제시했다. 부산해양박물관, 선박박물관, 통신사 역사관 건립, 초량왜관 복원 등 하드웨어 구축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근 주목받는 '다크투어리즘'도 소개됐다. 임진왜란 왜성(倭城), 우암동 소막마을, 부산항 제1부두 등 과거 비극과 재난의 현장을 재조명해 해양문화유산의 새로운 활용 가능성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부산이 해양수도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해양문화유산 발굴과 보존, 그리고 이를 구현할 수 있는 종합적인 기반 시설이 필요하다”라며 많은 예산은 필요하지만, 해양도시의 위상에 맞게 과감하게 나설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제29회 한국해양문학상 시상식

부산문인협회의 한국해양문학상에 올해 총 4,947편의 작품이 응모했다. 운문 부문에서는 시 1,180편, 시조 123편, 동시 102편이, 산문 부문에서는 소설 3편, 수필 72편, 동화 3편이 접수됐다.

대상은 차정연 시인의 「땀, 타법(打法) 외 55편이 차지했다. 최우수상은 「청어, 아청빛 바다로」 외 54편을 응모한 서기묵 시인에게 돌아갔다. 우수상은 「지금의 나는 유연한 문어에게 포획당했다」로 오십여 일간의 기록을 시화한 김하연 시인, 그리고 3장 6구의 단구 속에 의성어와 의태어를 적절히 활용해 정형시의 율격과 음보를 견지한 52수의 동시조를 응모한 오선자 시인이 수상했다. 산문 부문에서는 김병기의 『도라와 마법의 바다』(동화)가 최우수작으로 선정됐다. 우수상에는 조미형의 『산호 정원사 시엘과 친구들』(동화)과 이미임의 수필 「터전」 외 14편이 이름을 올렸다.

/ 편집실



2025 전국국악경연대회 제32회 부산국악대전 성료

2025. 8. 9. 부산예술회관

부산국악협회(회장 강명욱)가 주최·주관한 2025년도 전국국악경연대회 '제32회 부산국악대전'이 지난 8월 9일 부산예술회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대회는 판소리, 민요, 가야금병창, 기악, 무용, 타악 등 6개 부문에 걸쳐 전국에서 모인 총 321명의 참가자가 기량을 겨뤘다. 참가인원은 학생부 190명, 신인부 73명, 일반부 58명으로, 특히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개인과 단체가 가장 많았다. 세부 종목별로는 기악 100명, 판소리 55명, 가야금병창 38명, 민요 50명, 타악 18명, 무용 60명이 출전해 기악 부문이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 1 일반부 종합대상_김현희(무용_이매방류 승무)
- 2 일반부 종합차상_곽경희 3 일반부 종합대상_김현희
- 4 고등부 종합대상_이다겸



일반부 종합대상(국회의장상)에는 김현희(무용_이매방류 승무)가 차지했으며, 종합차상(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은 곽경희(가야금_김윤덕류가야금산조)가 이름을 올렸다. 대상(부산광역시장상)은 기악부문 강가희, 판소리부문 김진영, 가야금병창부문 김정환, 민요부문 이은지, 무용부문 여지원이 수상했다. 최우수상(부산광역시의회장상)에는 기악 육지용, 판소리 손정아, 가야금병창 배근영, 민요 조유진, 무용 노연정이 각각 선정됐다.

신인부 대상(부산광역시의회장상)은 기악 장준혁, 판소리 김가경, 가야금병창 이지윤, 민요 남옥윤, 타악 나아내풍물단, 무용 이영선에게 돌아갔다. 최우수상(사)부산민속예술보존협회 이사장상)에는 기악 김진주, 판소리 김순경, 가야금병창 도미경, 민요 박용복, 타악 김정대 외 7명(경현예술봉사단), 무용 허은영이 선정됐다.

학생부 종합대상(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은 국립전통예술고 1학년 이다겸(판소리) 학생이 영예를 안았다. 고등부 대상(부산광역시 교육감상)에는 오준희(기악_국립전통예술고 1학년), 김서현(판소리_남원국악예술고 2학년), 차다연(가야금병창_국립전통예술고 1학년), 황서진(민요_국립국악고 3학년), 이다현(타악_국립전통예술고 2학년), 노해나(무용_부산예술고 1

학년)가 수상했다.

중등부 대상(부산광역시장상)은 정예현(기악_부산예술중 3학년), 이서현(판소리_국립전통예술중 3학년), 윤서희(가야금병창_국립전통예술중 3학년), 김효정(민요_국립전통예술중 3학년), 박유준(타악_국립중 2학년), 박디아(무용_용문중 3학년)가 각각 차지했으며, 초등부 대상(국립부산국악원장상)은 김도연(기악_화정초 6학년), 김지우(판소리_은여울초 6학년), 이지영(가야금병창_서옥독산초 6학년), 임하린(민요_나진초 5학년), 박시현 외 29명(타악_김해구지초 6학년), 오나운(무용_황남초 6학년)이 수상했다.

이번 대회에서 학생부 수상자는 내년도 청소년국악제에, 일반부·신인부 수상자는 부산국악축제 무대에 설 기회가 주어진다. 특히 일반부 종합대상 수상자는 심사위원 자격 충족 시 대회 심사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부산국악대전은 국악 인재 발굴과 전통 계승을 목표로 해 마다 열리고 있으며, 올해로 32회를 맞아 전국 국악인들의 등용문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문의_051)644-5211 / 편집실



Jeevwi Lee 지비리, 노물의 빛, 율나무, 나무수지, LED, 가변 크기, 2025

2025 바다미술제

물 위 를 걷 는 물 걸 들

Undercurrents

2025. 9. 27. ~ 11. 2. 다대포해수욕장 일원

미술을 품은 물결이 다시 다대포로 향한다. 고운 모래 위에 감각적인 예술이 내려앉고, 바닷바람 사 이로 보이지 않는 미적 흐름이 꿈틀거린다. 2025 바다미술제가 'Undercurrents: 물 위를 걷는 물결 들'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곁을 찾아온다. 9월 27일부터 11월 2일까지, 37일간 펼쳐지는 이번 전시는 다대포해수욕장을 중심으로 물운대, 고우니 생태길, 다대소각장 등 그 주변 공간까지 예술의 무대로 확장된다. 바다와 육지의 경계, 잊힌 장소의 기억, 자연과 인간이 교차하는 흐름 속에서 새로운 예술 의 리듬이 시작된다.

전시 주제 ‘언더커런트(Undercurrents)’는 수면 아래 감지되지 않는 흐름,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힘에 대한 이야기다. 작가들은 흐름과 바람, 소리, 인간 그리고 비인간적 요소들이 만들어내는 생태적 리듬을 각자의 미적 감각으로 풀어낸다. 한때 북적였지만 지금은 고요히 멈춰 선 장소들 위로, 예술가들의 상상이 조용히 내려앉는다. 1998년 준공되어 2013년 가동이 중단된 다대소각장, 운영을 멈춘 옛 물운 커퍼숍, 모래바람에 묻힌 길들이 그 무대다. 작가들은 이 넓고 잊힌 경계 위를 천천히 걸으며 과거의 시간과 미래의 상상을 엮는다. 잊힌 바다의 공간들이, 예술의 숨결로 다시 살아난다.

칠레 산티아고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세바 칼푸케오(Seba Calfuqueo)는 마푸체 원주민의 시선으로, 토착민과 서구 사상 사이의 유사점과 차이점, 고정관념을 분석하며 식민지적 억압에 맞서왔다. 그는 젠더 이슈와 생태적 저항에도 목소리를 내며, 퍼포먼스·도자·영상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서구 중심적 사고에 균열을 내는 작업을 지속하고 있다.

부산의 작가 조형섭은 이번 바다미술제에서 다대소각장을 무대로 설치 작품을 선보인다. 한때 쓰레기를 태우던 이곳은, 이제 해양레저관광도시의 일부로 새롭게 탈바꿈할 예정이다. 작가는 한 시대의 끝자락에 선 이 장소에 예술로 작별을 건네며, 사라지는 기억을 조용히 남긴다.

안무가 안나 안데렉(Anna Anderegg)은 다대포를 지키는 ‘아지매’들과의 협업을 준비 중이다. 도시의 공공 공간과 사람, 감정의 교차점을 예술로 끌어내온 그는, 이번에도 신체와 주변 환경이 소통하는 새로운 퍼포먼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밖에도 전통 건축 재료와 공간을 시적으로 재해석해 온 올라프 홀츠압펠(Olaf Holzapfel), 무용가 마리 그리스마(Marie Griesmar), 한국의 설치미술가 지비 리(Jeewi Lee), 김상돈, 최원교, 플라스틱 판타스틱(Plastique Fantastique), 태국의 숨 수파파린야(Som Supaparinya), 미국의 자닌 안토니(Janine Antoni) 등 다양한 국적과 매체의 작가들이 이번 전시에 함께한다.

전시 공간 또한 특별하다. 물운대, 고우니 생태길, 다대소각장 등은 모두 바다와 육지의 경계에 놓인 장소로, 과거와 현재, 자연과 인간의 흔적이 함께 어우러져 있다. 이곳들은 단순한 전시장에 그치지 않고, 자연과 인공의 경계에서 새로운 감각을 일깨우는 ‘사이 공간’으로서 이번 바다미술제에 더욱 깊이 있는 의미를 더할 것이다.

이번 전시에서 예술은 소리 없이 다가오는 물결처럼, 우리 곁을 감싼다. 한때 사람들의 발길이 머물다 떠난 장소들 위로, 새로운 리듬과 감각이 내려앉는다. 그 공간에 깃든 시간은 다시 숨을 쉬고, 우리는 그 사이에서 잊고 지냈던 감정과 상상을 되찾게 된다. 다시 다대포로 향하는 예술의 파도 위에서, 우리는 공간의 감춰진 내면과 마주하게 될 지도 모른다.

문의_051)501-9369 / 편집실



조형섭_근대화 슈퍼, 자전거에 발전기, 간판 위 프로젝션 맵핑, 가변 크기, 2016



우정원 Inner Monologue, 120×150cm

한국 정신문화와 사진예술의 만남

2025 부산국제사진제 BIPF

2025. 9. 24. ~ 10. 23.

F1963 석천홀·스페이스 원자·학창공단 일산수지

부산국제사진제 조직위원회(회장 김찬식)는 오는 9월 24일부터 10월 23일까지 '제9회 부산국제사진제 BIPF'를 개최한다. 이번 사진제는 '흔 불'을 주제로, 한국 정신문화의 뿌리에서 출발한 '인간에 대한 존재론적 성찰'을 탐구하며 한국적 미학의 가치를 세계 무대 위에 드러낸다. 특히 국내외 24개국 250여 명의 사진가가 참여해 한국을 대표하는 사진축제로서의 위상을 다시금 확립할 예정이다.

예술감독 이일우의 기획 아래 열리는 이번 행사는 동시대 글로벌 현대예술의 주요 흐름 속에서 '정신의 가치'를 중심에 두며, 한국사진예술이 지닌 고유한 경쟁력과 정체성을 새롭게 제시한다. 이번 행사는 한국의 문화적 전통성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사진예술의 보편적 언어를 통해, 가장 한국적이면서도 동시에 세계적인 축제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재균_퍼서비어런스 #에너지(energy), 가변크기



정정희_논가는 아버지

핵심 전시인 '흔 불 : 심연의 빛'은 9월 24일부터 10월 14일 까지 F1963 석천홀에서 펼쳐진다. 권순관, 한정식, 우창원, 황규태 등 한국 현대사진을 대표하는 작가들이 참여하며, 독일·스웨덴·일본·우크라이나 등 해외 작가들도 함께해 각기 다른 문화와 시선 속에서 '존재와 빛'이라는 보편적 주제를 탐구한다. 또한 국제 청년작가 교류전 'Under the skin: 열과 막'은 학장공단 일산수지에서 열리며, 한국의 신진 작가들과 오스트리아·독일·일본·대만의 청년작가들이 함께 참여해 세대와 국경을 넘어서는 대화를 시도한다. 스페이스 원지에서 열리는 국제 오픈콜 전시 '흔이 있는 바다'에는 국내의 150여 명의 사진가가 대거 참여해 다채로운 시선과 해석을 담아낸다.

사진제의 깊이를 더하는 특별전도 주목할 만하다. 1960~70년대 한국 영화사의 현장을 기록한 '은막의 스타'는 산업화 시기의 정서와 문화적 풍경을 사진 아카이브로 재조명하며, 부산 리얼리즘 사진의 거장 정정희의 개인전 '아, 옛날이여'는 50여 년간 부산의 민속예술과 도시 풍경을 기록한 작품을 통해 한국 근현대사의 기억을 불러온다. 이외에도 'Canon Masters 특별전', '포트폴리오 리뷰 최우수 작가 한효진 개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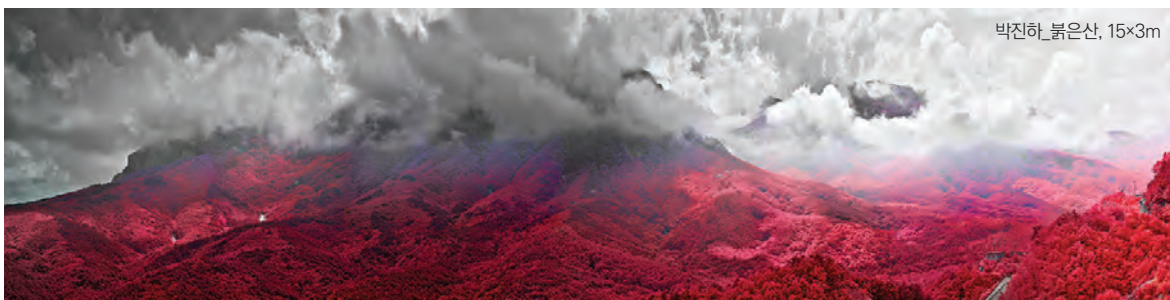
전, '자유전' 등 다채로운 기획이 관객을 맞이한다.

전시와 더불어 국제 교류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9월 28일 코모도호텔 세미나실에서 열리는 'Discovering Korean Artists 포트폴리오 리뷰'에는 독일·일본·대만의 기획자들이 참여해 한국 작가들에게 해외 진출의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부산 갈매기와 함께하는 개막 투어 프로그램'을 통해 전국의 사진가와 관객을 초청, 개막식과 공식 뒷풀이 행사, 부산의 주요 전시장 투어를 함께하며 축제를 시민과 공유하는 장을 마련한다.

이번 부산국제사진제는 F1963 석천홀, 스페이스 원지, 학장공단 일산수지 등에서 동시에 진행되며, 개막식은 9월 27일, 폐막식은 10월 23일에 열린다. 큐레이터 정금희, 정효섭, 손창안, 이재균이 함께 참여해 전시의 완성도를 높였다.

부산국제사진제는 매년 규모를 확장하고 수준을 높이며 성장해 왔다. 제9회를 맞이하는 올해 사진제는 부산에서 출발해 아시아와 세계로 퍼져가는 사진예술의 물결을 보여주며, 한국을 대표하는 국제사진축제로 또 한 번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문의_010-8525-9554 / 편집실



박진하_붉은산, 15×3m

2025 부산국제건축제

Busan International Architecture Festival 2025

2025. 9. 17. ~ 9. 21. 벅스코 제1전시장



1

건축의 공공성과 예술성을 아우르는 (사)부산국제건축제조직위원회(집행위원장 이성호)의 '2025 부산국제건축제'가 9월 17일부터 21일까지 벅스코 제1전시장에서 열린다. 올해로 25회를 맞은 이번 행사는 'Busan Style-Culture meets Architecture'라는 주제로, 특별전과 주제전, 기획전, 강연 및 이벤트 등 다채로운 콘텐츠로 꾸러진다.

특별전은 ▲OMA건축전 'When culture meets architecture' ▲도시전 '도시 전환기'로 구성된다. **주제전은** ▲B city '부산문화건축전' ▲B Architects 'Next Architects 4' ▲B Life '머무름의 공간, 스테이 건축' ▲B place '바다에서 본 도시 부산', **참여전은** 부산광역시, 부산지역건축단체 기획전 등이 진행된다. **강연**에는 OMA 크리스 반 두인Chris Van Duijn 초청강연회와 어린이도시건축교실, 건축 투어 등의 **이벤트**가 마련된다.

주제전 B place '바다에서 본 도시 부산'은 기장에서 다대포까지 배를 타고 촬영한 사진전을 통해 바다에서 바라본 부산의 도시 경관을 소개한다. 해수면에서 올려다본 이색적인 풍경은 일상에서 접하기 힘든 도시의 새로운 얼굴을 보여준다.

주제전 B Life '머무름의 공간, 스테이 건축'에서는 일상에서 벗어나 쉼을 제공하는 건축 공간을 선보인다. 자연 속에 자리한 건축물의 아름다움과 삶과 자연을 공간에 담아내는 설계의 다양한 방식을 조망한다.

2024 젊은건축가 파빌리온 공모전 당선작 '풍정의 마당' 전시에서는 파빌리온 제작의 배경과 의미, 제작 과정을 소개해 건축에 대한 흥미와 이해를 높인다.

부산국제건축제는 시민의 건축 이해와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부산다운 건축상 투어'에서는 '2025 부산다운 건축상' 수상 건축물 3~4곳을 직접 방문해 건축가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이 외에도 건축 취업박람회가 동시 개최되며, 관람객을 위한 오디오 가이드 서비스도 제공된다.

문의_051)915-8385 / 편집실

1 B Life '머무름의 공간, 스테이 건축'
_물 위의 여백, 서은재, 피엘에스건축사사무소, 사진 윤준환

2 파빌리온, 풍정의 마당

3 B Life '머무름의 공간, 스테이 건축'
_바운더리, 방기애, 엄태규(건축사사무소 씨엠엠), 사진 texture on texture

4 B place '바다에서 본 도시 부산'_물의 도시 부산, 사진 조명환





부산을 적시는 예술의 물결

2025

부산국제공연예술마켓

비팜BPAM

2025. 9. 24. ~ 28.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해운대문화회관·부산유라시아플랫폼 등

1

부산 전역이 공연예술의 파도로 물든다. 무용, 연극, 음악, 다원 예술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에서 모인 100여 편의 작품이 도시 곳곳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부산국제공연예술마켓BPAM-Busan International Performing Arts Market(이하 비팜)'은 단순한 공연 축제를 넘어, 예술과 산업, 그리고 사람을 잇는 거대한 플랫폼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올해로 3회를 맞이하는 비팜은 '공연예술의 새로운 물결 A New Wave of Performing Arts'이라는 슬로건 아래, 부산을 세계 공연예술계의 중심으로 세워가고 있다. 부산문화회관과 해운대문화회관, 부산유라시아플랫폼, 해운대 해수욕장까지, 무대가 도시 전역에 펼쳐져 있다는 점도 특별하다. 바다와 항구를 품은 도시가 공연예술의 향해지로 거듭나는 순간이다.

비팜의 백미는 공식 초청 프로그램인 'BPAM 초이스'와 'BPAM 쇼케이스'다. 각 장르별 프로그래머들이 큐레이션한 작품들은 단순히 무대를 채우는 데 그치지 않고, 공연예술의 무궁무진한 가능성과 다양성을 드러낸다. 미국 인형극 아

티스트가 선보이는 년버벌 감성극 <빌의 44번째 생일>, 자그레브 청소년 극장이 풀어낸 섬세한 심리극 <아들,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 침묵 속에 식탁에 오랫동안 앉아 있다>, 국악과 재즈의 경계를 허무는 김인수와 국악재즈소사이어티의 <장단소리 : 斷面단면> 등이 무대를 꾸민다. 여기에 스페인의 대표 현대무용단 안토니오 루스 컴퍼니가 선보이는 <파르살리아>도 큰 기대를 모은다. 이 같은 작품 선정에는 이종호 유네스코 국제무용협회 한국본부 회장이 총괄 예술감독을 맡고, 신은주(부산국제무용제 운영위원장_무용), 조희창(음악평론가_음악), 심문섭(예술은공유다_어댑터플레이스 대표_연극), 김형준(그루잠프로덕션 대표_다원예술) 등 각 장르별 프로그래머가 참여해 완성도를 높였다.

또한, 세계 공연예술계의 거장들이 부산을 찾는다. 에든버러 인터내셔널 페스티벌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로이 럭스포드Roy Luxford, 남미 최대 규모의 복합문화공간 팔라시오 리베르타드의 발레리아 암브로시오Valeria Ambrosio, 체코 최대 현대무용축제 타넵 프라하의 안나 오블레비치Anna Obolowicz가 참석한다. 해외주요인사 초청 사업인 'K-펠로우

십과 연계한 이들의 방문은, 비팸이 단순한 지역 축제를 넘어 한국 공연예술의 해외 진출을 이끄는 국제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했음을 보여준다.

비팸은 화려한 무대뿐 아니라, '시장'으로서의 정체성을 놓치지 않는다. 공연예술 단체와 세계 각국의 축제 디렉터, 공연장 프로그래머 등 다양한 예술 종사자가 교류하는 이 현장은, 한국 공연예술이 국제적 유통망 속에서 새로운 향로를 개척하는 장이 된다. 동시에 시민들에게는 저렴한 티켓으로 세계적인 공연을 접할 기회가 제공되며, '예술의 향유와 산업적 유통'이라는 두 축이 하나의 무대 위에서 공존한다.

부산문화재단(대표이사 오재환)은 올해부터 '지역 창·제작 프로젝트'를 신설해, 부산에서 태어난 신작들이 세계 무대와 이어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바다를 넘어 세계로 나아가는 길목에서 비팸은 지역 예술가들에게 든든한 징검다리가고 있다. 오재환 대표이사는 "올해 비팸의 성공 개최를 통해 부산의 공연예술 생태계가 국내를 넘어 아시아와 세계를 도약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하며, 텔리게이트·아티스트·관객이 모두 즐기는 가치 있는 플랫폼으로 발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오는 가을, 바닷바람 속에서 펼쳐질 다채로운 무대는 단순한 축제를 넘어 새로운 가능성과 만남의 순간을 예고한다. 부산에 모인 공연예술의 물결은 다시 아시아와 세계로 퍼져나가며, 관객은 그 넘실거림 속에서 예술의 현실과 미래를 마주하게 될 것이다.

문의_051)745-7228 / 편집실

- 1 다원_Dorothy James & Andy Manjuck_빌의 44번째 생일
- 2 연극_자그레브 청소년 극장_아들,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
침묵 속에 식탁에 오랫동안 앉아 있다
- 3 다원_Dorothy James & Andy Manjuck_빌의 44번째 생일
- 4 무용_안토니오 루즈 컴퍼니 파르실리아





충무공 팔사품

광복 80주년 기념 특별기획전 수군, 해전

2025. 7. 29. ~ 10. 26.

국립해양박물관 2층 기획전시실

광복 80주년과 대한민국 해군 창설 80주년을 맞아,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와 국립해양박물관(관장 김종해)이 뜻깊은 전시를 마련했다. 7월 29일부터 10월 26일까지 열리는 기획전시 '수군, 해전'은 고려 말부터 임진왜란, 조선 후기에 이르기까지 우리 바다를 지켜온 수군의 활동과 그들이 펼친 해전의 역사를 조명하는 특별한 자리다.

이번 전시는 국립진주박물관(관장 장용준)과 해군사관학교박물관(관장 박준형)이 공동 주관으로 참여했으며, 세 기관은 지난해 11월부터 협업을 준비해 올해 3월에는 정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오랜 논의와 협력을 거쳐 완성된 이번 전시는 단순한 해군사 전시를 넘어, 조선 수군의 전략과 정신, 해양 주권 수호의 의미를 현대적 시각에서 재조명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전시는 총 3부로 구성되어, 수군의 조직과 훈련, 무기 체계, 실제 해전까지를 체계적으로 다룬다. 1부 '나라를 지켰던 최

전선, 수군과 수군진'은 바다를 지키기 위한 정규군으로서 수군의 정기훈련과 해안 지역에 설치된 수군진 등을 소개한다. 특히 수군의 실전 전투훈련인 '수조水操'의 절차와, 임진왜란 이후 수군 지휘 체계의 중심이 된 통제영의 역할과 구조를 다루며 조선 수군의 치밀한 군사 운영 체계를 보여준다.

2부 '수군의 군기고'는 전투에서 실제로 사용된 무기와 방어 장비를 통해 조선 수군의 전술적 역량을 살펴본다. 판옥선, 거북선 등 조선의 대표적 군선부터, 여기에 장착된 대소형 총통, 불랑기, 조총 등 다양한 화기류와 신호 장치, 병법

서에 이르기까지, 당대 군사 과학의 집약체였던 수군의 실체가 입체적으로 구성된다. 전시는 각 무기의 형태와 사용 방식, 발사 기술 등을 시청각 자료와 함께 소개해 관람객의 이해를 돕는다.

3부 ‘국운을 건 승부, 해전’은 임진왜란 시기 최대 규모의 해전으로 꼽히는 ‘부산포 해전’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남긴 장계 모음인 『충민공계초』를 중심으로, 당시 해전의 전략과 전개 과정을 다양한 유물과 영상으로 복원했다. 특히 해전에서 순국한 정운 장군(1543~1592)을 비롯한 전사자들을 기리는 추모 공간이 마련돼,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수군의 숭고한 정신을 되새기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전국 13개 기관에서 출품한 170여 점의 유물을 선보인다. 이 중에는 임진왜란 직전 제작된 중완구(中完口)와 함께, 이순신 장군이 명나라 황제로부터 하사받은 팔사품(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 조선 후기 수군진의 구조를 담은 삼도수군해방총도 병풍(충청남도 유형문화유산) 등 희귀한 역사 자료도 포함되어 눈길을 끈다. 이를 통해 수군의 전략뿐 아니라 문화사적 가치와 상징성도 동시에 조명된다. 전시는 국립해

양박물관에서 끝나지 않는다. 오는 11월 11일부터는 해군사관학교박물관으로 전시가 이관되어, 해방 이후 대한민국 해군의 창설과 현대 해전사를 집중 조명하는 후속 기획전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내년 4월까지 계속될 이 순회 전시는 역사와 현재, 해양 주권 수호의 연속성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여정이 될 전망이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광복과 대한민국 해군 창설 80주년을 맞아, 조국을 위해 헌신한 수군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바다를 지키는 일의 중요성을 국민과 함께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무더운 여름, 국립해양박물관의 이번 기획전은 선조들의 해양 수호 정신과 바다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담아낸다. 역사의 파도 속에서 바다를 지킨 수군의 용기와 헌신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메시지를 전하며, 관람객에게 깊은 여운을 남긴다. 이번 전시가 광복과 해군의 역사적 의미를 새롭게 되새기고, 바다를 지켜낸 위대한 영웅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마음 깊이 새기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문의_051)309-1853 / 편집실



삼도수군해방총도 병풍



손끝에 핀 누비꽃

국가무형유산 누비장
특별기획전

2025. 7. 2. ~ 12. 31.
한국궁중꽃박물관

한국궁중꽃박물관(관장 최성우)과 (재)수로문
화재단은 2025년 특별기획전으로, 누비로
완성한 복식과 소품을 선보인 '손끝에 핀 누
비꽃展'을 개최했다. 이번 전시에는 누비 기법을 활용
한 누비 두루마기, 동다리 두루마기와 같은 의복 10여 점과 전통적
생활 소품인 누비아얌과 노리개, 비녀 등을 함께 선보였다. 전시작품은 국가유산
청의 전승공예품은행 제도를 통해 누비장 故 김해자 보유자 및 이수자의 작품을 대여한 것이다.

누비는 옷감의 보강과 보온을 위해 옷감의 겉감과 안감 사이에 솜, 털, 닥종이 등을 넣
거나 아무것도 넣지 않고 안팎을 줄지어 규칙적으로 흡질해 맞붙이는 한국의 전통 바느
질 기법이다. 우리나라의 누비는 면화 재배 이후 조선 초기부터 활성화됐으며 조선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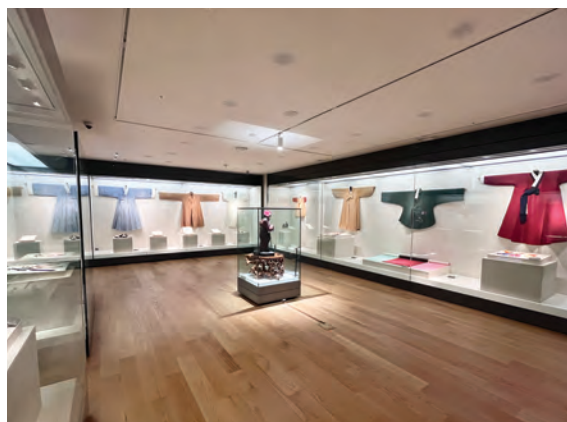
의 다양한 실물 자료들이 전해지고 있다. 누비의 어원은 승려들이 일상복으로 입는 납의(納衣)에서 유래했으며, 점차 누비기법으로 발전해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널리 사용됐다.

누비는 누비 간격이나 바느질 땀수에 따라 잔누비·세누비·중누비 등으로 나뉘며, 간격은 잔누비는 0.3cm, 세누비 0.5cm, 중누비 1.0cm 이상으로 구분된다. 형태에 따라 세누비·잔누비 중에서도 옷감 2겹만을 누벼주어 겹모양이 오목하면 오목누비라 하고, 솜을 여유 있게 두고 누벼주어 겹모양이 볼록한 입체적인 효과를 나타내면 볼록누비라 한다. 또 얇은 솜을 두거나 닥종이를 이용하기도 하고 옷감만으로 누벼주어 평면적이면 납작누비라 구분한다. 누비 용구로는 옷감 재질과 동일한 실, 누비 두께에 따른 다양한 바늘, 가위, 인두, 밀대, 자, 골무 등이 있다. 누비 바느질 기법은 홉질이 대부분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박음질도 사용된다. 의복이나 침구류에는 규칙적인 직선누비가 주로 사용되었으나 주머니나 보자기류에는 누비 자체를 문양으로 살려 곡선과 직선으로 조화를 이룬 것도 있다. 누비는 그 정교함과 예술성을 인정받아 1996년 국가무형유산으로 등록됐다.

국가무형유산 전승자로 우수한 전승공예품을 선보인 故 김해자 누비장은 전통 누비를 되살린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1992년 제17회 전승공예대전에 출품해 국무총리상을 수상, 1996년 국가무형유산 제107호 누비장으로 인정받았다. 1970년대 초 왕실 침방나인이었던 성옥염 여사와 선복 스님에게 바느질과 누비를 배우고, 1980년대 초부터 박물관의 유물과 구전으로 전해진 전통기법을 되살리기 위해 전념했다. 국내뿐 아니라 일본 NHK초대전, 파리 프레타포르테 100회 기념 한복전시회, 일본 동경퀼트페스티벌 초대전, 2023 파리 메종앤오브제 등 해외 전시회에 활발히 참여하며 누비를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앞장섰다.

한국궁중꽃박물관은 세계 유일무이한 궁중 꽃 전문박물관으로 국가무형유산 제124호 궁중채화장 황수로 장인이 역사의 기록으로만 남아있던 조선왕조 궁중채화를 복원 전시한 곳이다. 현재 고종의 어머니인 신정왕후의 팔순을 기념한 잔치인 '고종정해진찬의'가 재현되어 있어 조선 궁궐의 화려하고 장엄하게 장식했던 아름다운 궁중채화를 이번 특별기획전과 함께 감상할 수 있다.

문의_055)362-3661 / 편집실



한국궁중꽃박물관 설립자
국가무형유산 제124호 궁중채화장 황수로 박사

슈타이들 북 컬처 | 부산

Steidl Book Culture

2025. 7. 26. ~ 12. 7. 도모헌

아트북의 살아있는 전설로 불리는 게르하르트 슈타이들이 디렉팅한 전시 '슈타이들 북 컬처 | 부산'이 도모헌에서 진행 중이다. 이번 전시는 싱가포르 그래픽 디자이너 테세우스 찬^{Theseus Chan}의 전시장 내부 드로잉을 비롯해, 출판사 '슈타이들Steidl'이 추구하는 책의 가치와 메시지를 전하며 한 권의 완벽하고 아름다운 책이 탄생하는 과정을 공개한다.

'슈타이들 북 컬처 | 부산'은 슈타이들 책을 주제로 한 역대 최대 규모의 전시로, 서울에 이어 부산에서 두 번째로 개최됐다. 슈타이들과 함께 책을 제작하는 것은 아티스트의

커리어의 정점을 상징하는 지표라 불릴 만큼 세계 최고 수준의 미술관과 명품 브랜드, 그리고 아티스트들이 그와 협업해 왔다.

게르하르트 슈타이들은 마르셀 뒤샹의 이동식 미술관 '여행 가방 속 상자'와 플릭스스 운동의 창시자 조지 마키우나스가 제작한 '플릭스 박스'에서 영감을 받아, 상자, 슬립 케이스, 여행 가방 등에 담긴 여러 권의 책 '멀티플(아트북 오브제)'을 꾸준히 제작해 오고 있다.

부산 전시에서는 앤디 워홀^{Andy Warhol}, 짐 다인^{Jim Dine}, 에드 루샤^{Ed Ruscha} 등 세계적인 아티스트와 협업한 20여 점의



오래된 공장은 죽지 않는다.
버켄스탁 © 2024 Steidl

“우리는 종이를 꽃처럼 운반합니다.”

- 게르하르트 슈타이들 -

Gerhard Steidl 게르하르트 슈타이들
_© 2024 Werner Bartsch



멀티플을 선보인다. 특히 10여 년의 제작 기간 끝에 완성된 데미안 허스트Damien Hirst의 「Pharmacy London」 멀티플을 국내에서 직접 감상할 수 있다. 이 밖에도 펜디Fendi, 돔 페리뇽Dom Pérignon 등 명품 브랜드의 의뢰로 제작된 「팩토리 북」이 전시 중이며, 브랜드 탄생 250주년을 기념해 제작된 버켄스탁Birkenstock의 멀티플 「오래된 공장은 죽지 않는다Old Mills Never Die」는 이번 전시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로 꼽힌다.

1968년 설립된 슈타이들은 반세기 넘는 세월 동안 책의 한계를 넘어서는 실험을 거듭하며 예술의 무한한 가능성을 펼쳐왔다. 지금까지 아트북, 문학, 매거진 등 1,000여 권의 책을 완성하며 세계 아트북계에서 독보적인 위상을 지키고 있다.

인터랙티브 형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전시는 슈타이들의 인쇄소에 도착한 종이가 최상의 상태가 되도록 온도와 습도가 조절되는 창고에 보관되는 과정까지 세밀하게 담아냈다. 관람객은 전시장에서 완벽한 종이를 직접 보고 만지며,

종이가 넘겨지는 소리를 듣고, 슈타이들 책 특유의 잉크 향기를 음미할 수 있다. 또한 슈타이들이 평생 어떤 철학과 가치관으로 책을 만들어 왔는지, 다큐멘터리와 인터뷰 영상을 통해 세계적인 예술가의 삶을 깊숙이 들여다 볼 수 있다. 그는 “나는 책이 예술이 될 수 있다고 믿어왔다. 그게 내가 출판 시장에서 살아남고, 성공한 비결이었다”라고 회고했다. 이번 전시가 관람객 각자에게 자신만의 가치와 삶의 태도를 성찰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문의_051-888-8705 / 편집실

런던 약국_데미안 허스트
_© 2024 Steidl



Steidl_© 2024 Cedric Fernández

BU SAN MONTHLY 35

무지카비바 챔버앙상블 제37회 정기연주회

예술가의 생애

2025. 9. 30. 오후 7시 30분 부산문화회관 챔버홀

무지카비바 챔버앙상블(음악감독 박경희)이 오는 9월 30일(화) 오후 7시 30분, 부산문화회관 챔버홀에서 제37회 정기연주회 <예술가의 생애>를 연다. 이번 공연은 요한 슈트라우스 2세(1825-1899) 탄생 200주년과 장 시벨리우스(1865-1957) 탄생 160주년을 기념하는 의미를 담아, 두 작곡가가 남긴 대표 작품들을 현시대의 해석으로 재구성해 관객들에게 선보인다.

‘왈츠의 왕’으로 불리는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폴 편성 오케스트라 왈츠 작품은 현악 오케스트라와 피아노, 타악기 편성으로 새롭게 편곡된다. 깊고 풍성한 현의 사운드에 집중해 비엔나 왈츠 특유의 미묘한 리듬감을 극대화한다. 핀란드 국민악파의 창시자인 시벨리우스의 피아노 5중주 곡은 현악 오케스트라와 피아노 편성으로 연주된다. 이를 통해 핀란드 특유의 민속 음악적 요소와 정서를 관객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한국 작곡가의 창작곡도 무대에 오른다. 헨델의 「메시아」 전곡을 국악 스타일로 편곡해 세계 초연한 바 있는 작곡가

겸 지휘자 이수은의 국악퓨전앙상블과 현악 오케스트라를 위한 작품을 선보인다. 이번 공연을 위해 위촉된 이수은의 작품은 한국 작곡가의 예술적 영역을 확장하는 데 기여하는 물론, 관객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대중의 접근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무지카비바 챔버앙상블은 1998년 바이올리니스트 박경희를 주축으로 창단된 이후, 듀오와 트리오팀 챔버오케스트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구성의 앙상블로 활동하며 파워풀하면서도 따뜻한 호소력의 연주로 주목받아 왔다. 한국유네스코 40주년 기념음악회, 서울 이원아트홀 초청 아티스트콘서트, 임진각 힐링뮤직페스티벌, MBC 목요일음악회, 한-러 수교 25주년 기념 초청음악회, 광복 70주년 몽골필하모닉 초청음악회, 미국 캘리포니아 실비치 Sunshine Club 초청연주 등 국내외 주요 무대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음악을 통한 건강하고 긍정적인 사회 구성에 힘써 온 무지카비바 챔버앙상블은 더욱 폭넓은 무대로 관객들과 소통할 예정이다.

문의_010-9336-2687 / 편집실



다빈예술공간협회 동아시아미술교류전

공존의 길을 묻다

2025. 9. 10. ~ 16. 부산교육대학교 한새갤러리

(사)다빈예술공간협회(회장 김경남)가 마련한 '2025 동아시아미술교류전-공존의 길을 묻다'가 오는 9월 10일부터 16일까지 부산교육대학교 한새갤러리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한국, 중국, 일본 동아시아 3국의 작가들이 함께 참여하여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미술문화의 공존을 모색하는 자리다.

다빈예술공간협회는 지난 2011년부터 국제교류전과 국제학술세미나를 꾸준히 이어오며 부산 미술계의 국제화를 선도해 왔다. 팬데믹 시기에도 회원전을 중심으로 교류의 불씨를 이어온 협회는 지난해 일본, 중국, 러시아, 미국 작가들과의 국제교류전을 개최하며 국제적 교류의 발판을 마련했다. 올해는 그 성과를 이어, 동아시아 각국의 작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작품을 통해 문화적 공존의 가능성을 살피고, 앞으로의 미술문화가 나아갈 방향을 함께 모색한다.

이번 전시는 회화, 판화, 서예, 문인화 등 평면 작품 40여 점과 조각, 공예 등 입체 작품 20여 점을 포함해 총 60여 점을 선보인다. 특히 중국의 '화남농업대학 유명 교수' 예술디자인 학부 학장인 하신문 何新文 작가가 참여해 전통 재료와 현대적 감각을 결합한 옷칠 회화 「늦가을」을 선보일 예정이다.

협회는 전시와 더불어 해외 작가 1~2인을 선정해 작품론 발표를 진행, 각국의 미술 문화와 방향성을 심도 있게 나누는 자리도 마련한다. 이를 통해 단순한 작품 감상을 넘어, 동아시아 미술문화의 공존과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교류의 장이 될 전망이다. 이번 전시는 동아시아 미술의 다양한 흐름을 부산에서 만날 수 있는 뜻깊은 기회이자, 나아가 지역 미술계가 국제적 담론 속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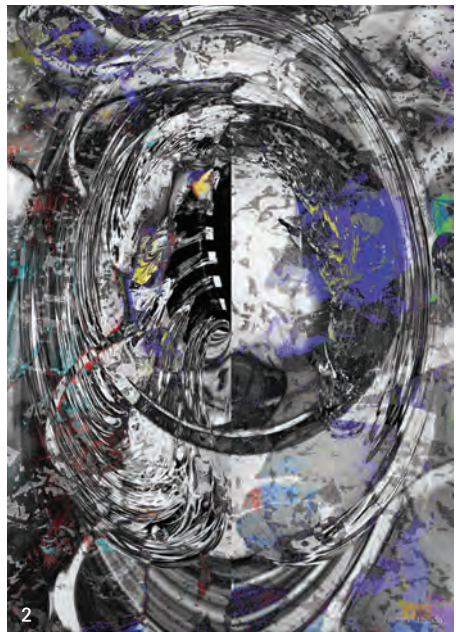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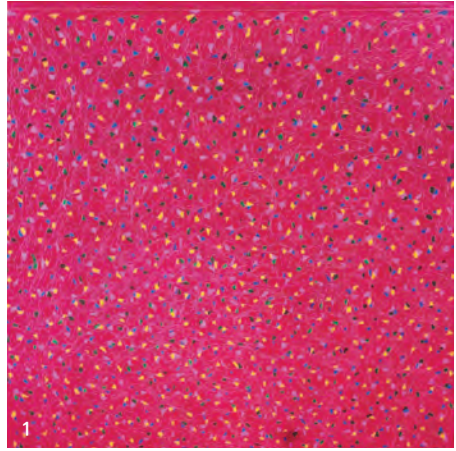
문의_010-3940-3060 / 편집실

1 이성재(한국)_상항, Oil on canvas, 20F

2 NAMIO MASUDA(일본)_sozai-2a-3-10(inner light),

CG printed on Water-resistant paper, (w)1050×(h)1500cm

3 何新文(중국)_늦가을, 옷칠 페인팅, 60×70cm, 2023



19년째 순항 중인 아트바겐쇼

10-200, 행복한 그림전

2025. 7. 12. ~ 8. 20. 맥화랑

'미술품 소장 대중화와 갤러리 문턱 낮추기'를 취지로 출발한 '10-200, 행복한 그림전'은 10만 원대부터 200만 원 사이의 부담 없는 가격대의 작품을 행복하게 거래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꾸준한 관람객들의 성원과 작가들의 지속적인 참여로 벌써 19년째 매년 여름에 맥화랑의 연례 기획전시로 열린다. 올해는 신진, 청년, 중견, 원로, 작고작가까지 총 74명의 작가가 전시에 참여하며, 회화, 조각, 사진, 판화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 200여 점을 선보였다.

전시의 가장 큰 특징은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관람 및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요인으로 오픈 전부터 많은 관람객이 관심을 두고 기다린다. 컬렉터는 작품을 소장한 이후 작가가 성장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 또한 부가적으로 따라오는 즐거움이다. 관객 외에도 작가적 측면에서도 의미는 특별하다. 처음 전시에 참여했던 작가들은 어느덧 중견 작가가 되었고, 학생 때 전시를 관람했던 이들 중에서도 신진, 청년 작가로 성장하여 전업 작가로서 전시에 동참하고 있다. 매년 참여한 작가들은 주변의 또 다른 좋은 작가를 소개하기도 하며, 전시에 새로운 숨결을 불어 넣는 중이다.

이번 전시에는 작고작가 김점선, 노은님, 부산의 원로 조각가 김정명, 2021년 국립현대미술관 '올해의 작가상'의 방정아, 2022년 부산 비엔날레 참여를 통해 예술계의 큰 주목을 받은 감민경, 2023년 영국 런던 사치갤러리 개인전 및 2024년 부산비엔날레, 2025년 미국 뉴욕 ACA 갤러리 초대 개인전까지 국내외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는 이두원 등이 참여했다.

'10-200, 행복한 그림전'이 예술문화의 도시 부산에서 아트페어의 새로운 방향성을 지닌 확장적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



박진성_풍선, Acrylic on frp,
22×23×20cm, 2025

문의_051)722-2201 / 편집실

제8회 영남춤축제 연계 전시

춤추는 레고

2025. 8. 29. ~ 12. 21.

국립부산국악원 국악체험관

국립부산국악원(원장 이정엽)은 8월 29일부터 12월 21일까지 국악체험관에서 '제8회 영남춤축제' 연계 전시 '춤추는 레고'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전통춤의 정수에 레고 블록의 현대적 상상력을 더한 작품들을 통해 한국 춤의 새로운 매력과 참신한 아름다움을 만날 기회를 제공한다.

전시를 맡은 레고 메이커 콜린 진(Colin Jin)은 작은 블록으로 한국 전통춤의 동작과 정서를 재탄생시켰다. 그는 무대 위 춤사위의 찰나를 관찰하여 레고라는 미니멀한 조형 언어로 다시 풀어냈다. 「무고」에서는 장중한 북춤, 「금회북춤」에서는 목화꽃이 피어나듯 동실 떠오르는 힘찬 리듬을, 「동래학춤」에서는 절제를 담은 자유로운 몸짓을, 「동래야류」에서는 우리가 볼 수 없는 달의 뒷면처럼 탈 속에 감춘 인간의 슬픔과 연민을 시각화했다.

특히 '동래야류'의 각시와 말뚝이, 영노, 할미·영감 과장은 선조들이 표현한 인간 내면의 희로애락과 더불어 풍자와 해학을 담아내며, 관객으로 하여금 춤과 놀이가 지닌 본질적 힘을 다시금 떠올리게 한다. 또한 관객이 직접 블록으로 춤사위를 만들어보는 체험 프로그램 '나만의 춤사위 만들기'는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함께 즐길 수 있는 참여형 공간으로 마련된다.

이번 전시는 세 가지 장면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고요한 절, 춤이 시작되다'에서는 궁중춤과 민속춤의 절제와 흥을, 두 번째 '탈을 쓰고, 세상을 비추다'에서는 동래야류의 해학과 풍자를, 세 번째 '나만의 춤사위 만들기'에서는 관객이 참여해 스스로 춤을 완성하는 경험을 선사한다. 국립부산국악원 이정엽 원장은 "이번 전시를 통해 누구나 국악을 재미있게 즐길 수 있도록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작은 블록으로 재탄생한 춤사위들은 전통의 깊이를 새롭게 드러내며, 관객이 전통춤과 국악에 한층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한다. 이번 전시는 전통과 현대, 놀이와 예술이 만나 만들어내는 신선한 감각을 통해, 우리 춤이 지닌 본질적 아름다움과 전통의 깊이를 다시금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문의_051)811-0031 / 편집실



선유락



금회북춤



봉평 메밀

강원도 평창군 봉평은 이효석의 소설 『메밀꽃 필 무렵』의 배경으로,
하얗게 핀 메밀꽃밭과 고요한 자연 풍경이 어우러진 문학적 명소입니다.

문학과 자연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이곳은
문학 애호가와 여행자 모두에게 매력적인 장소입니다.

글 사진 김재문 부산사진작가협회 섭외 간사







보라색 수탉

닭도 얼룩광대인가. 마르크 샤갈이 노년에 그린 「보라색 수탉」 원화 앞에 발을 멈추었다. 서커스 공연장이 배경인데 공중에 거꾸로 서 있는 수탉이 나를 놓아주지 않는다. 수탉의 노란 얼굴과 빨간 벧, 목도리처럼 두른 고기수염을 살피며 미소 짓다가 통통한 보라색 몸통을 지나 부스스한 엉덩이 부분에 이르러서는 입꼬리를 내린다. 요즘 형클어진 내 일상 같은 썩지않음을 차분히 빗겨주고 싶어 유심히 본다. 거의 그림 전면이 샤갈 블루가 차지한 몽환적인 세상에서 보라는 그 공간 왼쪽 위에 크고 둥글게 뭉쳐있다.

초록색 말이 원형공연을 돈다. 신부를 태우고 몇 바퀴나 돌았을까. 긴 머리의 신부가 앞을 지날 때마다 환호와 박수를 건넨 축하객들은 이제 키 큰 광대가 신



부에게 꽃다발을 건네는 장면에 눈을 모은다. 엄청난 크기의 꽃다발이 앞으로 그녀가 가질 세상이 될까. 그녀는 순백 드레스를 입고 머리에는 희고 긴 너울을 썼다. 한 손에는 작은 부케를 잡고, 다른 한 손은 가슴에 얹었다. 당신을 받아들인다는 몸짓일까. 감사하다는 인사일까. 머리에 붉은 꽃을 꽂은 신부의 볼에 홍조가 유난하다. 부끄러움과 연정, 기쁨, 기대와 환희, 어지러움과 조심성, 모든 것이 어우러진 감정으로 이 순간 여자는 심장이 빛으로 물들 것만 같다.

그냥 어릿광대일까, 신랑일까. 르네상스식 러프칼라가 독특한 빨간 복장의 남자는 정결한 흰 장갑을 끼고 온갖 색으로 찬란한 꽃다발을 받들었다. 꽃들은 기쁨으로 팡팡 터지는 축포처럼 팡팡하여 불꽃처럼 분위기를 끌어올리는데 바닥에 번지듯 풀어놓은 파란 물감과 갖가지 꽃 색깔은 섞이고 번지며 공연장을 채워 그곳을 마치 정령들의 놀이마당처럼 연출하였다. 꽃은 사랑의 상징이고, 화려한 꽃잎들은 애정의 밀어고 축사며 눈짓이다. 피에로가 긴 나팔을 불면 관객들은 제각각 마음이 원하는 노래를 듣는다. 꽃의 세레나데든 신세계교향곡이든 뭐든 가능한 세계에서 사람들은 꿈을 꾸다. 공중그네를 타는 곡예사도 멈춰 집중하는 시간에 눈앞이 흐려진 관객들은 어렵פות한 형체로만 존재한다. 지나간 환상을 꿈꾸는가. 몽롱하고 흐릿한 등 뒤로 움츠린 고독이 느껴진다. 천상과 지상이 푸르게 어울리는 이 공연장에서 손뼉을 치면서도 관객들의 의식은 자신의 과거를 훑고, 자신의 사랑을 떠올리겠지.

아마도 광대는 샤갈일 것 같다. 자신을 올려다보는 분홍빛 볼을 가진 어린 신부에게 그가 주고 싶은 것은 세상에서 제일 큰 꽃다발이다. 하지만 아내는 오래전 미국에서 죽었다. 히틀러의 광기를 피해 함께 대양을 건넌건만 병을 얻어 갑자기 세상을 떠나버렸다. 상실의 슬픔을 가리고자 얼굴을 초록색으로 화장하고도 그는 볼이 붉어졌다. 보라는 향수(香露)를 상징하는 색이라 한다. 샤갈은 벨라와의 추억을 서리서리 뭉쳐 무의식의 덩어리인 수탉을 만들어 공중에 띄웠을까. 헌신을 뜻하는 청색과 걱정을 의미하는 적색이 혼합되어 만들어진 보라색 수탉은 샤갈과 벨라를 외면하고 있다. 초현실적 세계에서도 자신의 무의식이 본인의 행동을 지켜보는 것조차 허락할 자신이 없었나 싶어 그가 안쓰럽다. 삭혀야만 하는 열정을 실어 그는 수탉을 그리고 또 그렸다. 벨라는 여전히 그의 신부였다. 마음의 고향이었다.

샤갈은 98세에 세상을 떠났다. 75년 동안 무려 만 점 가까이 작품을 남겼는데 수탉을 많이 그렸다. 검은 수탉, 노란 수탉을 위시해 푸른 수탉, 흰 수탉, 알록달록한 수탉, 머리는 붉고 몸통은 흰 수탉, 나아가 ‘곡예사’에서는 아크로바트를 하는 머리만 수탉인 남자, ‘우먼 버드’에서는 여성의 몸을 한 수탉까지 등장한다. 고향 비테프스크에서의 시골생활은 동물과 돈독한 유대관계를 유지하며 자연과 더불어 사는 유대교식 전통의 장이었다. 뜨겁게 요동치는 그림속의 동물들은 화폭을 자유롭게 유평한다. 그중에서도 수탉은 두 사람의 연정을 지지해 주는 친구이자 지지자였고 고향과 정기를 나누는 생물이었다.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이룬 저돌적인 연인들을 상징하는 존재로 수탉이 꼽힌 것은 그것이 지닌 용감하고 절대 굽히지 않는 자율성 때문은 아니었을까.

샤갈의 그림에서 사람과 동물은 같이 어울리고 때로는 합체할 정도로 가깝다. 나무와 꽃, 시계와 집, 바이올린 같은 악기들까지도 제각각 살아서 몸을 흔들고 리듬을 만들어내며 갖은 색채로 제 몫의 소리를 낸다. 메이야수가 말한 사변적 실재가 가능한 세상이 샤갈의 그림 속 삶이라는 생각을 해 본다. 벨라와 샤갈은 그런 고향을 공유한 지기였고, 실향민이었으며, 추억을 함께 회상하고 삶에 힘을 북돋는 동지이자 연인이었다. 벨라는 행복한 여성이다. 남편의 지극한 애정을 받았고, 죽은 뒤에도 지아비의 그림 속에서 영원한 뮤즈로 살게 되었으니. 샤갈은 “모든 생명이 결국 끝을 향해 간다면 우리는 그 끝을 맞이하기 전 사랑과 희망의 색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야 한다”고 하였다. 상실이 보편화 되어가는 시대라 하지만 누구나 생의 마지막까지 꼭 간직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고향이고 사랑이 아닐까. ‘색채의 마술사’가 만든 동화 같은 세상에서 벨라는 영원히 희망을 전하는 어린 신부고, 사랑받는 존재이며, 샤갈의 아프로디테다.

샤갈의 그림 속 행위소들은 중력의 그물을 벗었다. 물리적 법칙을 초월한 세계, 구속을 벗어난 영적 자유의 세상에서 연인들은 살고, 잃어버린 고향에서 함께 했던 잊지 못할 기억들과 사랑에 묶인 연인은 오래된 괘종시계와 나지막한 집들과 교당, 나귀와 바이올린과 수탉과 쌓아 올린 기억 속에서 평화롭게 어울리고, 지치지 않고 사랑한다. 순수한 감정과 추억, 신앙과 전통이 독특하게 융합된 이 사랑공화국에 들어선 관람객들은 한때 열광하다 놓아버린 아련한 기억을 되살려 아무도 모르게 그림 속에 자신을 들여보내고 그 앞에 머물면서 벨라도 되고, 샤갈도 되며 가슴을 덥히는 것은 아닐까. 나는 슬쩍 관람객들



Marc Chagall, Le Coq Violet(1966-72) oil, gouache and ink on canvas,
Private Collection © ADAGP, Paris-SACK, Seoul, 2018, Chagall ®

의 가슴에 매달린 그리움과 행복 방울을 엿본다. 샤갈은 우리의 삶에 '사랑'이라는 하나의 색이 있다고 하였다. 한가람미술관에서 열린 '샤갈 : <비욘드 타임>'에서 그의 분신들이 시간 저편의 세상을 보여준다. 한 세기를 살아낸 위대한 예술가의 지치지 않는 사랑법이 부럽다.

“인생에는 그늘진 면과 양지바른 면이 있는데, 나는 언제나 양지쪽을 걷기로 했다”는 샤갈의 말을 메모했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겪고 나치를 피해 도피 중에 아내를 잃었지만 좌절을 딛고 다시 붓을 잡았다. 폭력에 대항한 무기는 총도 칼도 아닌 꽃다발, 몽환적인 상징에 감정 이입해 사람들은 꽃들로 상처를 닦는다. 포스터를 구매해서 침실 반닫이 위에 놓았다. 샤갈의 나라에 벨라가 살고, 세상의 신행민들이 그 찬란한 세상을 보며 마음을 씻어 말린다. 가만히 「보라색 수탉」의 영토를 들여다본다.

글_송명화수필가

관객에게서 연극의 의미를 찾다

극단 판플 대표 양재영

첫인상은 아직 옛돼 보이는 얼굴로 겹은 다소 어수룩하지만, 질문에 답변하는 모습은 진지하면서도 차분히 본인의 정리된 언어로 쏟아내는 사람이 있다. 확신에 찬 말투와 강단 있는 행동에서는 젊은 극단 대표의 패기와 연극에 대한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다. 연극 연출가이자, 극단 판플 대표 양재영이 그런 사람이다.

연극이라는 놀이 입문과 연출의 방향성

그에게 연극의 첫 연결고리는 우연히 대학교 1학년 때에 참여한 연극 동아리의 활동에서 시작됐다. 당시에는 하나의 연극을 무대에 올리기 위해서 준비기간이 기본이 두 달 또는 그 이상의 시간이 할애되었다고 한다. 그럼에도 앞뒤 생각하지 않고 땀 흘리면서 하는 모든 것들이 미련할지언정 일련의 경험에서 오는 매력의 울림이 크게 다가왔다고 말한다. 다양한 사회 현상에 대한 조각을 직간접적으로 무대에서 풀어내고, 소통하는 형식의 극은 강렬하고도 특별한 인상으로 남았다. 이후 연극 그 자체에 대한 매력에 이끌려 본격적으로 첫 발을 딛게 된다.

연극계 입문 후로는 '연극' 그 자체에 대한 정의를 일방적으로 내리기보다 계속 변화된 모습의 자세를 보인다. 처음엔 막이 끝날 때까지 고민하고 노력해야 하는 '놀이'라고 인식하며, 단순히 무대 위 관객들의 즐거움을 바라보았다면, 지금은 연극에 대한 지식이 많아짐에 따라 극



- 음악극 <천국으로 배달해드립니다> 연출
- 연극 <게릴라씨어터> <아버지와 살면> <책방지기> 연출
- 2024 나는연출이다 한평의 우주상(연출)
- 2023 부산연극제 S섹션 동상 수상(개인)
- 2023 부산연극제 B섹션 베스트앙상블상(단체)
- 현) 극단 판플 대표

음악극 <천국으로 배달해드립니다>



에 여러 가지 부가적 의미를 더하고 다채로운 형식을 연출로 적용한다. 이처럼 계속적 변화의 시도는 그의 시각이 현 사회 현상을 투영시키는 지점이 커지고 있음을 뜻한다. 일년에 최소 한번은 배우를 겸하면서 극에 대한 시점 및 상황과 고충을 상대적으로 이해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며, 그만의 연출 방식을 만들어 가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연극 무대에서 관객들과의 호흡과 교감을 통해 얻어지는 현장감과 쾌감은 영화나 다른 분야에서는 느낄 수 없는 것으로, 연극으로 빠져든 결정적 계기로 꼽는다. 양 대표는 연출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분석을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제게 부족한 점을 계속 찾으려고 하는 시도가 곧 연출가로서, 장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한 행위들의 반복 속에서 이전 연출 속 문제들을 되짚어 보고, 고찰하는 것에서 다시 한번 성장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서 앞으로의 제 공연들이 당위성과 흐름을 찾아갈 것입니다.”

극단 대표로서 활동과 목표

지방에서 연극을 시작한 이들 중 다수가 서울로 떠난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연극과 연기에 대한 꿈을 이룬 사람은 매우 적다. 그는 이러한 현실적 상황을 인지하고, 연극 관련 진행되는 모든 것에 있어서 개별 활동보다는 결국엔 마음에 맞는 사람들과 함께 단체로 뭉쳐 진행하며, 이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하에 부산에서 극단 창단을 생각했다. 그렇게 2017년 극단 [판필]은 창단되었고, 대표를 맡아 해마다 워크숍과 연극제 활동을 이어가며 단체를 활발히 이끌고 있다. 극단의 방침은 소속 단원들의 성장과 지역연극의 발전으로, 연극을 준비할 때는 콜렉티브Collective 형식으로, 각자가 필요 역할을 맡고 공통의 목적을 향해 나아간다. 그가 단원들을 생각하는 애정은 남다르다. 가령 데뷔작(임봉작)의 기회를 만들어주거나, 따로 케이크를 준비해 소소한 데뷔 축하식을 마련해주는 방식이 그러하다. 이에 대한 속내는 아

마도 같은 길을 포기하지 않고,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라는 그만의 격려이다.

극단은 밤낮 없이 바쁘게 돌아간다. 전체가 따로 또는 같이 최선의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이 한창이다. 각종 행사로 시작된 공연들은 장르의 다양성과 재미를 추구하며 시간이 지나 재단 지원 사업으로도 선정되어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이후 극단의 효자 상품 공연들이 하나, 둘 생겼다. 최근작 <계털라 씨어터>와 음악극 <천국으로 배달해드립니다>는 극을 통해 인생의 축소판과 연극의 본질적 의미를 익살스럽게 되묻기도 하고, 사회적 문제와 소외된 이들에 대한 시선을 다층적 느낌으로 풀어낸 작품들로 객석에서 좋은 반응을 끌어냈다. 하나의 공연을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꾸준히 레퍼토리Repertory하여, 극단의 대표작들을 만드는 과정은 최종적으로는 극장에서 정기적인 공연을 만들어 내겠다는 그의 차기 계획이다. 현재 극단 모든 인원의 노력과 작업으로 목표에 가까워지는 중이다.

관객 그리고 연극의 의미

양재영은 연극에서 관객의 관점과 욕구를 끊임없이 관찰하고 이를 작품으로 전이시키고 확대할 수 있는 대중성을 지닌 작품들의 창작과 발굴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러한 요소들이 모여 다양한 장르의 연극이 만들어지고 관객층도 넓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극에 관한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며 결국에 그가 바라는 것은, 대중과 접점을 찾고 소통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이러한 결과로 2023년 부산연극제 S섹션 동상과 2024년 나는 연출이다 한평의 우주상(연출)을 연이어 수상했다. 그는 올해 11월 부산시민회관 소극장에서 열릴 예정인 작품의 구상 준비에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다. 청년 연출가이자 극단 대표로서 연극의 즐거움을 만끽하고 그가 앞으로 부산 연극계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리하길 기대한다.

글 인물사진 백근영



제36회 부산사진대전 대상 사진가 **성현미**

- 한국사진작가협회 부산지회 섭외간사
- 2025 부산사진대전 대상
- 62회 전국회원전 우수작품상
- 부산사진작가협회 공로상
- 각종 공모전 수상 다수

이번 여행지는 방글라데시다. 호텔에서 느긋하게 조식을 먹고 출사 갈 준비를 한다. 서두를 필요는 없다. 사람들이 활동하는 시간에 맞춰 그 속으로 걸어 들어가면 된다. 목적지는 기차역이다. 사람이 가장 붐비는 곳. 정착하거나, 스쳐 지나가거나, 떠나는, 수많은 이들이 철관 속 찢줄처럼 복잡하게 얽혀 삶의 냄새를 풍긴다. 긴 열차를 따라 나열된 입체화한 수많은 시각 가운데 어느 한 지점에서 카메라를 든다. 그들의 삶이 빛어내는 열기를 치열하게 카메라 셔터로 받아낸다. 렌즈의 경계로 이분화된 세계 속에서 다양성과 이질성, 그리고 공기 속에 부유하는 감정까지 픽셀 위에 빛의 흔적으로 새겨 넣는다. 이제 事實은 史實이 되어 한 장의 사진으로 남을 뿐이다.

성현미 작가는 2025년 부산사진대전에서 「window」로 대상을 받았다. 이 작품은 방글라데시의 한 열차 칸을 사각 프레임에 맞춰 촬영한 것이다. 짙은 청록색의 기차에 대칭적으로 배열된 두 개의 창문이 평면적으로 배치된 듯 보이지만, 열차 안에서 창문 너머를 응시하는 인물들이 입체적으

로 부각되는 독특한 장치로 작동한다. 왼쪽 창문에는 이슬람 모자를 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노인과 상체를 숙여 창문 가까이 다가와 카메라를 향해 호기심 어린 시선을 보내는 중년 남성이 있다. 오른쪽 창문에는 붉은 의상에 청록색 히잡을 두른 여성이 턱을 괴고 자신만의 상념에 빠진 듯한 표정으로 어느 한 곳을 응시한다. 여기서 인내심을 갖고 사진을 좀 더 깊숙이 들여다보면, 여인 뒤로 한 명의 또 다른 인물이 있다. 검은 천으로 눈만 제외하고 나머지를 완전히 가린 니갑을 쓴 여성이 살짝 고개를 숙인 채 카메라를 향해 시선을 보내고 있다. 어둠 속에서 드러난 그녀의 눈동자는 장면을 새롭게 환기하며, 내면 깊숙이 응축된 감각을 표상 가능한 세계로 줌인Zoom in한다. 그는 “종교적 탄압과 억압 속에서 사는 아랍 여성도 바깥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가득 찬 평범한 청춘이고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듯한 여인의 눈빛이 특히 눈길을 사로잡았다”라고 작품을 설명했다.

사진은 기록성과 심미성을 동시에 가진다. 어찌 보면 이질적인 두 성격이 공존하기에 사진을 감상한다는 것은 광범위

한 세계를 넘나드는 행위일지도 모른다. 즉 사진은 이미지 표면의 세계에만 머물러선 안 되고, 이미지를 탄생시킨 이전의 세계와 함께 맥락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특히 다큐멘터리 작업이라면 작가 개인의 미적 창조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산물로 다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성 작가는 2011년 첫 출사여행으로 인도 라다크를 방문했다. 고산지대의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를 오지로 끌어들이었다. 중군 사진가 로버트 카파(Robert Capa, 1913~1954)가 대상에 충분히 가깝게 다가선 것처럼, 성 작가는 그들과 감정을 교류하며 사진에 매료되기 시작했다. 그렇게 라다크를 연이어 세 번에 걸쳐 방문하고 마치 공기와 같은 존재로 현장에 참여해 한 구성원으로서 사람의 감정과 스토리텔링을 담아내는 사진가의 길로 들어섰다.

이후 그는 바단지린 사막에서 지독한 여름을 보내고, 차간호에서 영하 30도의 혹독한 추위를 견디며, 말 달리는 내몽골 패상에서 시원의 초원을 달리는 말과 사진을 찍는 사람의 심장 고동소리까지 담아냈다. 미얀마에서 부처님의 미소를 보고, 고산병을 각오하고 떠난 동티베트, 차마고도, 실크로드, 쿠바, 과테말라, 베트남, 아프리카, 방글라데시, 인도 나갈랜드까지 오로지 사진을 찍기 위해 떠난 여행이었다.

2010년쯤 사진에 발을 들인 그는 부경대학교 평생교육원, 고은사진미술관과 부산의 유명 사진 전문가들을 찾아다니며 사진을 배우고, 2016년에 부산사진작가협회 회원으로 입회했다. 아마추어 사진작가로서 이념적이거나 강력한 메시지에 편향되지 않고, 계획이나 연출 없이 익명의 군중 속에서 관찰자의 시선으로 사회적·문화적 감각을 수집하고 재생산해 낸다. 그의 입장은 세계적인 사진작가 앙리 카르티에 브레송(Henri Cartier Bresson, 1908~2004)의 말과 맞닿아 있다. “난 그 어떤 메시지도 전할 것이 없고, 그 어떤 것을 증명할 것이 없습니다. 세상을 보고 느낄 뿐이며, 거기서 얻은 인상이 모든 것을 좌우합니다. 한순간이 찍히지만, 그 안에 모든 것이 담기죠. 사진이란 어떤 것을 환기하는 것입니다.”



성현미는 그물을 던진다. 끝이 날카로운 바늘에 꿰어지는 한 마리의 물고기 대신 넉넉한 품의 그물을 던져 다양성을 건져 올린다. 현장의 ‘모든 것을 보는’ 초월적인 관찰자 대신 그 공간에서 이뤄지는 호흡만큼의 카메라 셔터를 눌러 ‘장면’을 포착해 낸다. 그의 사진 속에는 ‘사람’이 있고 ‘노동’이 존재한다. 그가 포착한 노동의 구조에는 삶을 극복하려는 절박함이나 처절함보다, 즐거움과 행복이 깃들어 있다. 세상을 파편적으로 담아낸 그의 사진은 불확실한 세계를 아름답고 희망적으로 빚어내며, 절대 풍화되지 않을 세계를 세워간다.

부산사진대전에서 대상이라는 목표를 이룬 성 작가는 최근에는 국제사진공모전에 도전 중이다. 2013년 제20회 대한항공여행사진공모전 입선을 시작으로, 2017년 은상을 수상하며 부상으로 받은 항공권으로 스위스를 다녀와 『예술 부산』(2025.3. 포토에세이)에 사진을 실는 등 꾸준한 걸음을 이어왔다. 부산에서 빛을 세상에 담아낸 그는 이제 그 빛을 세계 곳곳에 전하려 한다. 한 장의 사진이 건네는 이야기가 국경을 넘어 울림이 되길, 그의 새로운 여정을 응원해 본다.

글 인물사진 정혜주

음악으로 세상을 잇다

플루티스트 박찬엽

- 계명대학교, 경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 부산시립교향악단 정년퇴임
- 경남대, 경성대, 고신대, 동아대, 동의대, 부산교대, 부산대, 신라대, 인제대, 부산예술중고 외래교수 역임
- 2004 부산음악상 수상
- 2015, 2020 부산시장 표창
- 현) 부산플루트 앙상블 리더
부산시민관악단 단원
빛나사오케스트라 단원

조용한 소년이 우연히 불어본 플루트의 '첫소리'에 매혹되었다. 그 순간의 설렘은 그를 음악의 길로 이끌었고, 낯선 악기와와의 만남은 단순한 취미가 아닌, 인생을 결정짓는 운명 같은 시작이 되었다. 작은 호흥이 만들어낸 그 첫소리는 '평생의 소리'가 되어 지금도 그의 걸을 지키고 있다.

운명처럼 다가온 플루트

박찬엽 플루티스트는 유년 시절 말수가 적고 조용한 성격이었다. 음악과의 유일한 접점이라곤 집에 있던 아버지의 전축뿐이었다. 음악가 집안도 아니었고, 중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는 악기를 직접 연주해 볼 기회조차 없었다. 가끔 전축에서 흘러나오는 팝송이 마음을 흔들었지만, 그마저도 멀리서 들려오는 배경음악 같았다. 그러던 중, 중학교에 입학하면서 친구의 권유로 학교 밴드부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 순간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변곡점이 되었다.

처음 맡은 악기는 타악기였다. 당시 밴드부의 타악기는 큰북, 작은북, 심벌즈, 트라이앵글, 캐스터넛즈 정도가 전부였다. 그는 타악기를 통해 처음으로 음악과 교감하는 방법을 배웠다. 같은 재단의 고등학교로 진학한 후, 음악은 또 다른 모습으로 찾아왔다. 밴드부에 처음으로 플루트가 도입된 것이다. 낯선 악기를 호기심에 붙어본 단원들 중 소리를 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그가 마우스피스에 입을 대고 호흡을 내뿜는 순간, 운명적인 '첫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 자리에서 유일하게 소리를 낸 주인공이 된 그는, 선배들의 권유로 플루트를 맡게 됐다. 이후 음대에 다니는 선배의 추천으로 레슨을 받기로 결심했고, 부모님께 말씀드렸다. 처음에 아버지는 음악가 집안이 아니고, 당시로서는 음악을 진로로 삼는 것이 흔치 않다는 이유로 반대하셨다. 하지만 장남이 확고한 꿈을 품고 도전하겠다고 하자, 결국 허락해 주셨고, 그는 본격적으로 플루트를 배우기 시작했다. 그 선택은 대학 진학과 부산시립교향악단 입단으로 이어졌다.

부산시립교향악단 38년, 세 번의 잊지 못할 무대

[부산시립교향악단(이하 부산시향)]은 1981년, 악단 해산의 아픔을 딛고 재창단의 막을 올렸다. 당시 교편을 잡고 있던 박찬엽 플루티스트는 재창단으로 생긴 플루트 파트의 공

백 소식을 듣고 주저 없이 지원했고, 당당히 합격했다. 당시 부산시향은 겸업을 금지했기에 그는 대구에서의 교직을 내려놓고 부산으로 내려와 단원으로서 새로운 음악 여정을 시작했다. 그렇게 이어진 부산시향과의 38년은 한 예술가로서의 삶이자 그의 음악 인생 그 자체였다. 그 세월 속에서도 특히 세 무대는 지금까지도 선명하게 남아 있다.

첫 번째는 재창단 지휘자 박종혁 선생과 함께한 무대였다. 시민회관 대극장이 아닌, 다소 좁고 소박한 4층 연습실에서 열린 공연이었다. 객석에는 공무원과 음대 교수 등 소수의 초대 손님만 자리했지만, '슈베르트 미완성 교향곡'의 선율이 작은 공간을 가득 메웠다. 모든 것이 낯설고 서툴렀던 시절이었지만, 그때 느낀 음악에 대한 열정과 설렘은 지금도 또렷하게 남아 있다고 전했다.

두 번째는 1997년 미국 카네기홀 공연이다. 세계 음악인들이 '꿈의 무대'라 부르는 그곳에 섰을 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전율을 느꼈다고 한다. 카네기홀 특유의 환상적이면서도 고귀한 음향은 지금껏 다른 어느 콘서트홀에서도 경험하지 못한 깊이의 울림과 황홀함을 선사했다. 당시 함께 무대에 오른 모든 단원이 하나의 목소리로 공감한 순간이었다. 그는 최근 부산에 문을 연 '부산콘서트홀'을 언급하며, 부산이 세계적 수준으로 도약할 잠재력을 지닌 공연장을 갖게 된 것은 지역 음악인으로서 큰 자랑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은 2019년 12월, 정년 퇴임을 앞두고 열린 송년음악회에서 울려 퍼진 「베토벤 합창 교향곡」이었다. 여러 차례 무대에서 연주한 작품이었지만, 이날만큼은 달랐다. 콘트라베이스의 마지막 선율이 잦아들고, 이어 합창단의 「환희의 송가」가 장엄하게 터져 나오는 순간, 그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에 사로잡혔다. 그날의 울림은 오랫동안 그의 마음속에 가장 빛나는 장면으로 남았다. 그는 “그날의 무대

페터 루카스 그라프 Peter Lukas Graf(왼쪽)와 박찬엽 플루티스트(오른쪽)



는 시향에서의 제 음악 인생을 마무리하는 순간이자, 가장 아름다운 울림으로 마음 깊이 남아 있습니다”라며 그 날을 회상했다.

음악이 만든 유대와 치유

퇴임 이후에도 그의 음악 여정은 멈추지 않았다. [부산 시민관악단], [빛나사 심포니오케스트라] 등 여러 단체에서 여전히 플루트를 들고 무대에 올랐다. 그가 연주를 이어가는 가장 큰 이유는 사람과의 교감이다. 동료들과 나누는 대화, 연습실에 울려 퍼지는 웃음소리, 공연 뒤 건네는 짧지만 따뜻한 덕담이 그의 삶에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넣는다. 물론 완성도 높은 연주에서 오는 성취감도 크지만, 그가 믿는 음악의 힘은 그 이상이다. “음악은 마음을 여는 힘이 있습니다. 언어의 장벽도, 국경도 뛰어넘어 사람과 사람을 이어줍니다.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게 하고,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기도 하지요. 저는 이 공감과 치유의 힘 때문에 음악을 놓을 수 없습니다.” 박찬엽 플루티스트에게 음악은 단순한 예술이 아니라, 사람을 잇고 위로하는 삶의 방식이었다. 무대 위와 무대 밖에서, 그는 여전히 그 힘을 믿으며 음악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고 있다.

플루트로 부산과 세계를 잇다

현재 그는 [부산플루트앙상블]의 리더로 활동하고 있다. 1992년 남성 전문 연주자 5인으로 출발한 이 앙상블은 수십 년간 일본·중국을 비롯한 국내외 주요 도시에서 수백 회의 공연을 펼쳐 왔다. 2001년에는 창단 10주년을 기념해 첫 음반을 발매하며 그동안의 활동을 결실로 남겼다. 현재는 8명의 전문 플루티스트가 함께하며, 부산을 대표하는 상징적이고 수준 높은 전문 앙상블로 자리매김했다. 부산시향 시절에는 주로 전통 클래식을 연주했지만, 퇴임 후에는 앙상블을 통해 대중가요와 영화나 드라마의 OST 등 보다 폭넓은 장르에 도전하고 있다.

그는 2015년 전국 최초의 [그랜드 플루트 오케스트라] 창단에도 참여했다. 부산·경남 지역 플루트 전공자 110명이 모여 만든 이 대규모 단일 악기 오케스트라는 플루트 음악의 가능성을 한층 넓히는 시도였다. 악장으로 무대에 오른 그는 연주자들이 서로 교류하고 유대감을 나누는 장을 마련했다.

부산플루트앙상블로 해외 무대를 누비며, 그는 특히 일본 공연에서 강한 인상을 받았다. 당시 일본의 악기 전시회, 전문 서적, 다양한 앙상블 악보 등은 우리나라보다 한 발 앞선 음악 문화를 보여주었다. 그는 이런 경험을 ‘값진 배움의 시간’이라 회상했다. 과거 프랑스 유학을 꿈꾼 적도 있지만, 병환 중인 아버지와 장남이라는 위치 때문에 뜻을 접어야 했다. 대신 외국 연주자들을 초청해 연주해 보고, 해외 공연을 꾸준히 이어가며 짧은 시간에도 최대한 배우고자 노력했다. 그는 “유학을 가지 않았기에 오히려 더 절실하게 배우고, 더 많은 것을 쌓을 수 있었다”며 웃었다. 이처럼 끊임없이 배우고 나누려는 열정이, 그가 지금도 무대 위에서 플루트를 연주하게 하는 힘이다.

진심으로 이어지는 음악

박찬엽 플루티스트의 열정을 일찍이 알아본 스승이 있었다. 계명대학교 재학 시절, 그의 지도교수였던 김진경 선생은 특별한 선물을 건넸다. 달력을 재활용해 만든 노트에 자필로 옮겨 적은 「모차르트 플루트 협주곡」 악보였다. 당시에는 두꺼운 노트를 구하는 것조차 어려웠기에, 스승이 직접 만든 소중한 기록이었다. 그는 이 악보를 '가보'라 부르며 60년 넘게 간직해왔다. 보물은 주인을 잘 찾았고, 스승의 뜻을 깊이 새긴 그는 훗날 누군가에게 또 다른 좋은 스승이 되었다.

그는 경남대, 경성대, 고신대, 동아대, 부산교대, 부산대, 신라대, 인제대, 부산예술중고 등에서 외래교수로 활동하며 수많은 제자를 길러냈다. 제자가 갖춰야 할 자질로 그는 '기본기', '성실함', '진정성'을 꼽는다. "성실하게 기초를 쌓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연주할 때 진심으로 하지 않으면 다 드러납니다." 완곡을 위해 건성으로 연주하는 것은 소리와 동작에 고스란히 나타나며, 무대 위에서는 청중의 반응도 그대로 전해진다고 말한다. 공연은 결국 청중과의 대화이며, 그 호흡 속에서 불협화음은 곧바로 감지된다는 것이다.

그의 가르침은 공명, 정확한 음정, 음악적 표현, 효율적인 연습법 등을 아우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눈'으로 음악을 바라보게 하는 일이다. 마음 없는 거짓된 말이 상대를 감동시킬 수 없듯, 음악이라는 교감의 언어 또한 진솔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철학이다.

음악에서 피어나는 행복

그는 제자가 무대 위에서 빛나는 순간, 앙상블 속에서 마음이 하나 되는 순간, 그리고 청중과 호흡하며 감동을 나



누는 순간을 자신의 음악 인생에서 가장 큰 보람으로 꼽는다. 2004년 부산음악상과 2015·2020년 부산시장 표창 등 여러 공로를 인정받았지만, 그는 모든 성과가 주변의 응원과 협력 덕분이었다고 말한다. "수상은 저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나아가 마음이 아픈 이들에게 음악으로 따뜻한 위로를 전하게 합니다." 그에게 음악은 단순한 예술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진정한 교감의 도구다.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도 거창한 목표보다는 사람 간의 진심 어린 소통에 중점을 두고 있다. 주변 사람들과 음악의 향기를 나누며 행복을 공유하고, 후배 음악인들에게는 물질적인 성취보다 음악의 울림을 통해 정서적 가치를 바라보고 감정의 공명을 추구하길 바라고 있다.

박찬엽 플루티스트에게 음악은 단순한 예술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을 잇는 다리다. 그의 선율은 타인의 가슴에 행복의 씨앗을 심고, 그 씨앗은 자라 세상 곳곳으로 뻗어간다. 그가 남긴 소리는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조용히 두드리는 따뜻한 노크와 같다. 언젠가 그 노크가 자연스러운 인사가 되는 세상이 오기를 바라며, 그의 음악에 작은 소망을 실어본다.

글 인물사진_박준영

시인 친구에게

공옥식

그대가 보내준, 서로 출간한 시집 한권
 옥문 속 소나기 같은 글비를 맞으며
 그대 마음 간절함을 온 몸으로 느낀다네.
 운문과 산문의 삶을 '충추기'와 '간기'에 비유한 폴발레리
 시적화자가 각중화자가 되는 그대 운문의 승철에
 나도 모르게 걸음에서 충추고 싶어
 그대 가치 있는 상징적 자산을 함께 향유한다네.

작가노트 | 누군가 문학의 궁극적인 장르는 시라고 한다. 소설가로서 운문 속 서사의 매력에 빠져본다.

글_공옥식 부산소설인협회 회장

RE: VIEW

음악 밤마다 타오르던 햇불, 그리고 지금
조선버전 <빛나는 밤 : 햇불> _ 김용호

문화 K-Pop과 퇴마의 신선한 시너지 효과
넷플릭스 <케이팝 데몬 헌터스> _ 백근영

밤마다 타오르던 횃불, 그리고 지금 조선버전 <빛나는 밤 : 횃불>

글_김용호 공연기획자

2025년 8월 14일 저녁, 국립부산국악원 예지당의 무대 위에는 뜨겁고도 묵직한 시간이 흘렀다. 조선버전의 제1회 정기연주회 <빛나는 밤 : 횃불>은 단순한 음악회가 아니라, 우리 역사의 한 장면을 오늘의 예술로 다시 불러낸 순간이었다. 공연장은 시작 전부터 긴장과 기대가 뒤섞인 공기로 가득했고, 무대에 첫 음이 울려 퍼지는 순간, 관객들은 모두 숨을 고르며 음악에 귀를 기울였다.

이번 공연의 제목 <빛나는 밤 : 횃불>은 단순히 아름다운 빛을 뜻하지 않는다. 일제강점기의 어둠 속에서 독립운동가들이 밤마다 들어 올렸던 횃불, 그 불빛으로 인해 우리의 밤이 빛날 수 있었음을 기억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조선버전은 공연을 통해 그 불빛을 오늘의 무대 위에서 다시 켜 올리고자 했다. 전통과 현대를 넘나드는 음악적 실험 속에서, 횃불은 과거의 상징이자 현재의 질문, 그리고 미래로 이어질 약속으로 되살아났다.

프로그램은 총 아홉 곡의 창작 기악곡으로 구성되었다. 거문고, 대금, 해금, 타악, 가야금, 피리, 소아쟁, 건반이 편성되어 성악 없이 순수 기악만으로 이야기를 풀어냈다. 각 곡은 독립운동가들의 삶과 정신을 음악으로 형상화한 서사적 구성을 지녔다. 첫 번째 곡은 '평화'를 주제로 삼았다. 전통 현악기의 잔잔한 울림과 대금의 호흡이 중심이 되어, 우리가 지향해야 할 세계의 고요함과 이상을 담아냈다. 그러나 이 평화는 곧 이어지는 두 번째 곡에서 깨진다. '일제의 침탈'을 표현한 두 번째 곡은 우리 민족의 한을 표현했다. 객석의 공기마저 슬픔으로 굳어지는 순간이었다.

세 번째부터 여덟 번째 곡까지는 특정 독립운동가들의 정신을 각각 음악으로 풀어내었다. 거문고의 깊은 저음과 해금의 애절한 선율은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투쟁의 굳건함을 표현했고, 피리와 대금의 격렬한 대화는 목숨을 걸고 싸웠던 젊은 청년들의 결기를 떠올리게 했다. 때로는 침묵이 흐르듯 악기들이 멈추고 다시 시작하며, 이름 없이 쓰러져 간 수많은 이들의 숨결을 음악으로 기렸다. 여덟 개의 악기가 서로 얽히고 충돌하며 만들어 낸 불협과 화합은, 바로 독립운동가들의 고독과 연대, 절망과 희망을 동시에 상징하는 듯했다. 곡들이 이어지는 동안 관객들은 숨을 죽이고 무대에 몰입했다. 각 곡이 끝날 때마다 울려 퍼지는 박수는 단순한 예술적 감탄을 넘어, 그들의 정신을 함께 기억하고 있다는 증언처럼 느껴졌다.



마지막 아홉 번째 곡은 모든 독립운동가에게 바치는 감사의 노래였다. 합주 형식으로 편성된 이 곡은 건반이 서정적인 화성을 깔고, 그 위로 모든 악기가 차례로 목소리를 보태며 마침내 하나의 거대한 울림을 만들었다. 때로는 장중하게, 때로는 눈물겹게 흐른 선율은 관객들의 마음을 울렸고, 마지막 음이 사라진 순간 객석 전체는 박수로 화답했다. 관객들은 오랫동안 손뼉을 멈추지 않았고, 어떤 이는 눈물을 흘리며 무대를 바라보았다.

국립부산국악원 예지당에서의 이번 공연은 조선버전의 첫 정기연주회라는 의미를 넘어, 도시와 역사, 공동체적 정서를 함께 일깨운 상징적 장면이었다. 부산이라는 공간은 항구도시로서의 개방성과 더불어, 격동의 근현대사를 품은 곳이다. 바로 그 무대에서 햇불을 주제로 한 음악이 연주되었다는 사실은, 부산 시민들에게 더욱 깊은 울림으로 다가왔다. 이후에도 조선버전은 영도문화예술회관 절영홀과 부산대학교 10.16기념관으로 무대를 이어간다. 영

도에서는 섬과 바다의 공간적 정서가 음악과 겹쳐질 것이고, 부산대에서는 젊은 층과 학문적 분위기가 또 다른 해석을 이끌어낼 것이다. 같은 아홉 곡이라도, 공간에 따라 다른 빛을 띠는 햇불처럼 무대마다 새로운 의미가 만들어질 것이다.

조선버전의 음악은 완결된 결말을 제시하지 않는다. 대신 여백을 남기고, 그 여백을 채우는 것은 관객의 몫으로 남긴다. 이번 무대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관객들은 각자 품고 있는 기억과 감정을 불러내어, 음악과 함께 저마다의 햇불을 다시 들어 올렸다. <빛나는 밤 : 햇불>은 단순한 국악 공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우리가 누구인지, 무엇을 잊지 말아야 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되묻는 시간이었다. 전통은 계속되고, 시대는 갱신되며, 예술은 여전히 타오른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불꽃을 지피는 [조선버전]이 있다.

K-Pop과 퇴마의 신선한 시너지 효과

넷플릭스 <케이팝 데몬 헌터스>

글_백근영 한국화가

최근 넷플릭스의 <케이팝 데몬 헌터스(K-Pop Demon Hunters)>의 글로벌 흥행으로 한류에 대한 재조명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작품은 대한민국의 K-Pop 아이돌을 소재로 한 최초의 해외 제작 애니메이션으로, 걸그룹이자 무당인 주인공들이 보이그룹으로 위장한 악귀로부터 팬들을 지켜낸다는 콘셉트이다. 사실 한류 열풍은 이전에도 있었지만, 이번은 다른 의미에서 특별하다. 애니메이션 특유의 입체적인 기술적 측면과 한국 전통문화와 동시대 대중문화를 융합해 음악적 요소로 작품을 몰입시키고 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는 서울을 배경으로 인류를 지키는 선의 역할인 세 명의 여전사를 등장시키고, 대립적으로 악의 무리를 배치하는 이분법적 구성을 취한다. 이는 마치 이전 영화 중 <고스트버스터즈Ghostbusters>와 <파워 퍼프 걸The Powerpuff Girls>의 플롯¹⁾을 적절히 섞은 듯한 인상을 준다. 영화는 'K-Pop' 문화가 내용 전반에 스며들어 있으며, 전통과 현대 문화의 융합을 통해 장르적 스펙트럼을 확장했다는 것에서 여러 가지로 유의미하다. 주된 내용은 3인조 걸그룹 헌트릭스HUNTR/X 멤버들이 음악의 파장으로 인간 세계를 지키는 경계선 장벽 '혼문'을 만들고, 세상을 위협에 빠트리는 악귀 보이그룹 사자보이즈Saja Boys와 귀마 일당들을 처치하는 서사를 그린다. 특히, 동양 문화권 중 한국 문화 속 무속신앙 개념을 적용해 한국의 선과

악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기 쉽게 이미지화하며, 기존 콘텐츠와 차별성을 둔다. 비교하자면 서양 문화 개념에 선인 퇴마사는 단순히 악을 퇴치하는 역할과 사후세계에 대한 구도 인식이 비교적 명확하게 나뉘어져 있는 특징을 가진다면, 한국의 원귀는 각자가 '서사'를 가지며, 단순한 '악'이 아닌 풀지 못한 이야기와 감정을 품고 있어 정서적 밀도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이 다른 점이다.

세부적 요소에서도 한국 문화와 역사에 대한 충실한 고증이 눈에 띈다. 영화 곳곳에서 한국의 서울 도시 경관과 한국인의 특정 행동 및 사고방식, 먹거리 등을 세밀하게 묘사했다. 특히, 남산 서울타워와 낙산공원 성곽길, 명동 거리, 케이팝 스퀘어 미디어, 대중목욕탕, 지하철역, 포장마차처럼 익숙한 풍경들이 등장하고 이를 아름답고 정겹게 표현했다. 배경이 되는 디테일 부분은 사실적으로 구현함으로써, 한국인들에게는 보편적 공감대 형성을 끌어내고 외국인들에게는 이색적 느낌과 신선함을 선사한다. 모든 장면과 디자인에 한국적인 요소를 가미하는데, 주인공들은 평소 김밥과 라면을 주로 먹고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는 국밥을 찾거나 한의원에서 진료를 받는 등 설정이 친숙하며 현실적으로 다가온다.

이와 함께 한국 문화를 대변할 수 있는 이미지와 미학을 느낄 수 있는 숨은 소재들이 눈을 즐겁게 한다. 첫 번째

NETFLIX



로, 헌트릭스 응원봉과 공연 스테이지 바닥에 있는 단청 무늬인데, 주로 전통 건축물이나 불교 사찰, 궁궐 등에 장식적 요소와 위계를 의미하며, 기하학적 패턴과 색 조합이 극에서 시각적 안정감을 주고 있다. 두 번째, 주인공들의 옷에 패션 소재로 복을 기원하는 의미의 노리개를 적용하여 전통성과 멋을 더했다. 세 번째, 무속신앙의 기원적 역할을 하는 당산나무의 등장은 공동체의 구심점 역할과 인물 간 소통의 공간으로 신비하고 묘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네 번째는 조선시대 왕의 권위와 신성함을 상징하는 경복궁 옥좌 및 일월오봉도가 쇼케이스에 등장하는데, 시대적 상징성과 시간상 과거와 현재를 잇는 연계성을 가진 분위기 연출은 주인공들의 존재적 가치와 행위에 당위성을 부여한다. 마지막으로 극 속 전령 역할을 하는 호랑이(터피Derpy)와 까치(서씨Sussie)는 과거부터 한국에서 용맹함과 희망을 뜻하는 상징적 존재들로서, 현대 문화 코

드에 맞게 이미지의 변화와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감초 역할을 톡톡히 해낸다.

이밖에 스토리 전개와 함께 흥행을 이끈 일등 공신인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Original Soundtrack 「골든 Golden」 「소다 팝 Soda Pop」 등도 대중들에게 큰 호응을 얻으며 연일 신기록을 만들어 가고 있다. 영화는 단순히 화려한 액션물과 아이돌 판타지에 머무는 것이 아닌, 문화적 특수성을 강조함에 따라 오히려 글로벌 시장에서 독창성과 경쟁력이 될 수 있다는 새로운 흐름의 가능성을 제시했다. 결과적으로 이를 통하여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이다’라는 명제를 다시 한번 증명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1 일련의 사건으로, 이야기와 함께 서사를 구성하는 구조를 의미한다.

건축과 서예 XV

천년의 달빛을 머금은 해안의 관문 해월정과 고천 배재식



바다와 달이 만나는 해월정

해운대 달맞이 고개의 끝자락, 바다와 하늘이 맞닿는 지점에 팔각의 지붕을 인 해월정海月亭이 서 있다.

수백 년의 파도와 바람이 깎아낸 해안 절벽 위, 이 정자는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온 문지기처럼, 동해의 해돋이와 대보름의 달빛을 한자리에서 품어왔다.

바다 저편에서 불어오는 짙 내음과 소나무 숲을 스치는 바람은 이곳을 찾는 이들의 마음속 깊이 옛 정취를 심어준다. 이곳은 해운대에서 송정으로 이어지는 해안을 따라 미포, 청사포, 구덕포로 이어지는, 이른바 ‘부산의 삼포 가는 길’의 시작점이기도 하다.

정자 아래쪽에는 한국 불교계의 거목이자 대한불교 조계종 제6대와 제7대 종정을 역임한 성철 스님이 주석하였고, 그의 법을 이은 천제 스님이 중창한 해월정사가 위치한다.

오는 길 한 켠에는 역시 대한불교 조계종 제13대와 제14대 종정을 지낸 진제 스님이 창건한 해운정사가 있어, 이 일대는 자연경관뿐 아니라 불교문화의 향기도 진하게 풍긴다.

부산에는 송정 죽도공원의 송일정松一亭, 연산동의 고려가사를 간직한 정과정鄭瓜亭,

송도해수욕장 송림공원의 송림정松林亭, 반송천의 반송정盤松亭, 부산시민공원의 시민정市民亭 등

다양한 신축 정자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해월정은 규모와 입지, 경관의 조화로 단연 으뜸으로 꼽힌다.

인근에는 2000년 1월 새천년을 기념하는 시계탑 또한 세워져

해운대의 새로운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팔각정의 품격과 해월정 현판

해월정은 팔각지붕 아래 천장을 우물반자로 꾸미고, 화려한 단청을 더한 전형적인 팔각정八角亭 구조로, 1997년 조성된 이후 수십 년간 해운대 달맞이 고개의 상징이자 대표적 랜드마크로 자리해 왔다.

언론에서는 “팔각지붕으로 덮어쓴 화려한 외관이 매력적이며, 그곳에서 바라보이는 바다와 달의 수수하면서도 절묘한 어우러짐이 해월정의 진정한 아름다움”이라고 평가한다.

또 “팔각정이라는 전통 건축 양식이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어,

마치 김홍도가 그린 ‘달 아래 정자의 정취를 현대적으로 재현한 장소’라는 평도 있다.

정자에 오르면 동해의 일출과 송정 해변, 동백섬, 오륙도에 이르는 광활한 해안선이 한눈에 들어온다.

낮에는 청량한 바닷바람이 정자 안으로 스며들어 여유로운 시간을 선사하고,

밤이 되면 은은한 달빛과 함께 해운대의 야경이 달맞이의 낭만을 배가시킨다.

정자의 현판은 부산 서예계의 대표적 명필 중 한 사람인 고천古泉 배재식裴在植(1931-2011)이 집필했다.



해월정_고천 배재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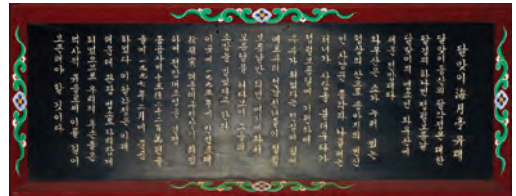
그의 필획은 힘차고 유려하며, 활달하게 휘몰아 내려가는 선 사이에 시원한 바람과 흐르는 물결의 감각이 깃들어 있다. 이 글씨는 해월정의 건축미와 어우러져, 이곳을 찾는 이들에게 경관뿐 아니라 예술적 감흥까지 전한다.

해월정의 기판과 시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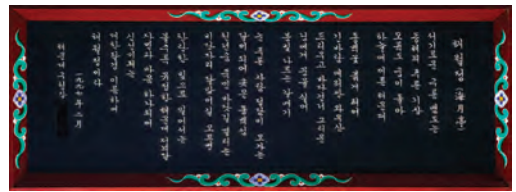
해월정이 건립될 당시, 외부 현판 외에도 내부에 두 점의 현판이 제작되어 걸렸다. 하나는 「달맞이 해월정 유래」라는 기판(記板)이고, 다른 하나는 「해월정」 시판(詩板)이다. 두 현판 모두 오늘날의 글쓰기 방식에 맞추어 한글을 주축으로 하면서, 숫자와 일부 용어에 간단한 한자를 곁들인 국한문 혼용체로 되어 있다.

기판과 시판의 서체는 동일하며, 시판 말미에는 ‘해운대구청장’이라는 각명이 새겨져 있다. 당시 해운대구청장은 훗날 부산광역시장을 역임한 서병수의 부친 서석인이었으며, 글은 그가 짓고 서예는 고천 배재식이 맡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서체는 궁서체가 아닌, 옛 국민학교 시절의 정자체를 닮았는데, 이는 배재식이 오랜 기간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며 다져온 필풍과도 유사하다. 기판의 「달맞이 해월정 유래」에는 해월정이 자리한 와우산(臥牛山)의 전설과 함께, 1995년 민선 초대 해운대구청장의 발의로 공사를 시작해 1997년 2월 준공되었다는 기록 또한 담겨 있다.



달맞이 해월정 유래 기판記板



해월정 시판詩板

교육자에서 서예가로-고천 배재식의 생애와 발자취

고천 배재식은 경남 산청군 생초면에서 태어나 1951년 진주사범학교(현 진주교육대학교)를 졸업한 뒤 평생을 부산에서 보냈다. 동일초등학교 교사로 부임해 교감과 교장을 거쳤으며, 부산대학교·한국해양대학교·부산여자대학(현 신라대학교)에서 서예를 강의하며 후학을 양성했다. 동구 수정동에서 오래 거주하며 스스로를 ‘수정실주인(水晶室主人)’이라 칭한 그는, 교육자이자 예술가로서 교단과 화단을 넘나들며 왕성하게 활동했다. 부산미술협회전, 지방작가 초대전, 현대미술대전 등 각종 전시에 참여했고, 1975년 제24회 대한민국미술대전에서 도연명의 시 「초목맹하장(草木孟夏長)」으로 대통령상을 받으며 전국적 명성을 얻었다. 국전의 대통령상은 분과별로 8년에 한 번꼴로 돌아가며 수여되는 영예였고, 수상자의 이름은 곧 그 분야 최고를 상징했다. 서예 부문 수상자는 우죽 양진니, 평보 서희환, 그리고 배재식 세 사람이었다. 대통령상 수상 이후 그는 부산시 문화위원과 문화재위원으로 위촉되고, 부산시문화상을 수상했다.



금란지교_고천 배재식, 석정 김성균 소장



해운대구석기유적지_고천 배재식



충렬사정화기념비 전고석戰鼓石 비문(1978년 5월)
_항파 이주홍 짓고 고천 배재식 쓰다

이후 부산미술전람회와 대한민국미술대전 심사위원을 역임하며 부산미술협회 이사장, 한국서예협회 부산지부장, 한국서가협회 부회장 등을 맡으며 서예계의 중추로 자리했다.

1976년에는 충장공 정발 장군 동상, 충렬공 송상현 선생 동상, 충렬사 정화 공사 기록화의 고증을 담당하며, 여기에 필요한 대부분의 글씨를 직접 집필했다.

부산 서예계의 활달한 필운筆韻

부산 서예사에는 시대를 빛낸 명필들이 적지 않았다. 그 가운데에서도 고천 배재식은 젊은 시절부터 유려한 필치와 활달한 필운으로 독보적인 존재였다. 영도의 도인嶋人 이만우가 초서와 행서로, 청남靑南 오제봉이 해서와 예서로, 동계東溪 박명찬이 예서와 전서로 명성을 떨쳤다면, 배재식은 행서와 해서에서 활달하면서도 기품 있는 필획으로 당대 서예계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었다. 특히 배재식의 서체는 청나라 명필 황산곡黃山谷의 필법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유연함과 호방함을 더했고, 아래로 휘몰아 내리는 획은 막힘없이 흐르는 물줄기 같고, 그 속에는 바람처럼 시원한 기운이 감돈다고 평가받는다. 해월정의 현판(1997)에서 충렬사 상량문과 정화기념비 전고석 비문(1978), 경상남도 사천 이충무공 유적 비문, 어린이대공원의 사명대사 비명, 부산박물관 상량문, 해운대구석기유적 등, 그는 수많은 역사 현장에서 서예가로서의 기량과 더불어 역사 고증과 문화유산 기록에 헌신하며 지역문화의 원로로 자리했다. 그의 행보와 필운은 예술의 경지를 넘어, 부산의 역사와 정체성을 아로새기고 증언하는 품격 있는 문화유산이 되었다.

글_이현주 부산시 국가유산위원

<케이팝 데몬 헌터스> 열풍을 잡아먹는 담배꽂초 투기행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2025년 8월. 세계는 <케이팝 데몬 헌터스 K-Pop Demon Hunters>(이하 케데헌)라는 애니메이션 영화의 슈퍼 열풍에 휩싸여 있습니다. 지난 6월 세계 최대의 온라인 스트리밍 플랫폼 기업인 넷플릭스 Netflix의 공급망에 올라탄 케데헌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화의 소재가 워낙 기발한 데다 영화 내용도 탄탄한 짜임새로 구성되어 있어서 당분간 이 애니메이션의 열풍은 세계 구석구석을 헤집어 놓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한국인, 특히 한국의 젊은이들은 케데헌의 위력을 마치 자신이 만들어 낸 성과물인 것처럼 반기는 것 같습니다. 케데헌이 어떤 작품이고, 왜 세계인들이 이 작품에 홀딱 반해 버렸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담배꽂초
화재위험



담배꽂초 무단투기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됩니다.
담배꽂초로 인한
화재발생 시
형사고발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산 구

이 영화 감독은 한국계 캐나다인(Maggi Kang·여성)과 미국인(Chris Appelhans)입니다. 일본(Sony Pictures Animation)과 미국, 한국이 손을 잡고 공동 제작을 했으며, 아리아나 그린블랫과 BIBI(비비), 김민하 등 한국인 성우도 큰 역할을 맡았습니다. New Jeans, HUNTR/X, DPR LIVE, SAJA Boys 등이 OST 참여 아티스트입니다. 액션-판타지-뮤지컬-애니메이션인 케데헌이 지난 6월 글로벌 영상 영화 공급망인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되자마자 전 세계인들은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영화의 배경은 악귀가 출몰하는 세상입니다. 주인공들은 K-팝 아이돌 그룹이자 악귀 퇴치 능력을 지닌 '데몬 헌터'로 활동하며, 자신들의 음악과 춤을 통해 악귀를 물리칩니다. 어느 날, 지하철에서 거대한 혼돈이 발생하고 악귀들이 휩쓸면서 대규모 혼란이 일어납니다. 데몬 헌터는 이 위기를 극복하고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고군분투하죠. 영화는 이런 위기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멤버들의 갈등과 우정, 그리고 성장 스토리를 담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한국의 전통문화와 현대적인 K-팝을 융합하여 전 세계 관객들에게 신선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지구를 지키는 건 칼이 아니라 리듬이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영화의 OST와 유쾌한 스토리는 전 세계인들로부터 세대 구분 없이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케데헌에는 극중 부적과 민화, 무속 의식, 사물놀이 리듬 등 한국 문화가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습니다. 주인공들이 사용하는 무기는 한국인들에게 친숙한 태극검과 봉황부채이며, 조선시대 전설에 기반을 두고 설정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캐릭터 '더피Derpy' 인형, 자개 패턴 배지, 전통 부적 세트 등 굿즈가 출시되자마자 매진되었습니다. 또 OST 6곡이 Billboard Hot 100 진입에 진입하는가 하면 애니메이션의 빅히트를 발판 삼아 후속작 TV 시리즈, 뮤

지컬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현재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영화 사운드트랙은 역대 애니메이션 OST 중 가장 큰 상업적인 성공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애니메이션은 단순한 아이돌물물이 아니라, K-팝과 무속신앙, 액션 판타지를 결합해 전 세계적 팬덤과 문화적 공감을 동시에 이끌어낸 사례여서 "디즈니의 <엔칸토> 이후 가장 성공적인 문화 융합 애니메이션"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전문지 포브스Forbes는 이런 기상천외한 작품으로 세계 K-팝 팬들을 사로잡아 버린 한국계 매기 강 감독을 "올해(2025년) 가장 주목할 여성"으로 손꼽았고, 할리우드 리포터는 그녀에 대해 "문화적 교차점에서 서서 애니메이션의 지형을 바꾸는 창작자"라고 극찬했습니다. 매기 강 감독은 케데헌을 기획하고 제작할 때 한국 문화의 정체성과 시각적 독창성을 강조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고 합니다. 그는 "한국 문화를 배경으로 한 애니메이션을 반드시 만들고 싶었으며, 이를 위해 신화, 악령 숭배 문화, K-팝을 융합했으며 시사적으로 독특한 작품을 지향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영화를 "K-팝에 대한 자신의 러브레터이자 한국적 뿌리에 대한 헌사"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는 어릴 때 한국을 떠나 캐나다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한국 문화를 깊이 사랑하고 있으며 '뻗속 깊이' 한국인으로 살고 있음을 엿볼 수 있게 합니다. 그런 감독이기에 사면의 '굿'과 음악·무용의 연계성을 표출할 수 있었을 겁니다. 또 한국 전통문화의 바탕 위에서 무당이 음악과 춤으로 요괴를 쫓는 '굿'의 요소를 K-팝의 콘서트와 자연스럽게 연결했고, 이 둘을 합쳐 K-포맷의 뮤지컬 액션 애니메이션으로 발전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매기 강 감독은 극중 아이돌 그룹의 음악을 단순한 삽입곡이 아니라 내려티브와 밀접하게 연결되어야 한다고 판

단했고, 실제 K-팝 레이블과의 협업을 통해 음악-춤-콘서트의 연출을 통합함으로써 콘텐츠의 질을 높였다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매기 강 감독과 제작진은 케데헌을 통해 한국 전통문화의 디테일을 치열하게 녹여내기 위해 많은 발품을 판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서울 북촌과 용인 민속촌, 명동 거리 등의 현장을 찾아 사진을 찍으면서 분석했고, 길의 벽돌이나 수저, 넓킨 같은 소소한 부분까지 애니메이션에 반영하는 등 현지답사와 문화적 디테일을 반영하는데 진력했습니다. 이런 노력을 통해 조선시대 민화 속 호랑이와 까치 그림(호작도, 虎鵲圖)을 영감 삼아, Jinu의 호랑이 캐릭터 'Derpy'를 디자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Saja Boys의 「Your Idol」 퍼포먼스는 저승사자[Jeoseungsaja] 이미지를 모티프[Motif]로 제작, 전통적인 분위기를 효과적으로 나타내는 등 전통 미술과 심벌의 시각화도 가능했습니다. 이와 함께 더블랙레이블, BTS·TWICE 협업진 등 실제 K-팝 레이블과 협력함으로써 실제 K-팝처럼 들리는 곡들을 제작하고, 트와이스는 OST 중 「Takedown」을 직접 불렀으며, 수정 과정만도 최대한 7~8회에 달하는 등 음악적 진정성을 놓치지 않기 위해 현지 협업에도 매달렸습니다. 특히 이병헌, 김윤진, 안효섭 등 한국 배우들을 영여 더빙에 참여시켜 '한국 이야기'로서의 정체성을 강조하는 등 한국인 성우 캐스팅과 언어적 정체성을 유지하려는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어 말투에 맞춘 입 모양, 한국 과자 패키지의 글자 방향 확인 등 작은 부분에서도 한국적인 표현을 세심하게 챙겼다는 후문입니다. 매기 강 감독의 언론과의 인터뷰 내용은 한국인들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그는 “한국계 여성으로서, 우리 이야기를 직접 만들고 싶었다”라며 문화적 소비자가 아닌 창작자로서의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K-팝 무대는 사면의 굿과 닦았다”라거나 “이건 단순한 애니메이션이 아니라, 나 자신과 뿌리

에 대한 이야기이다”, “진짜 한국적인 것일수록 세계에 통한다”라고 밝히는 등 K-팝 정신과 성공의 근원까지 터치하려 한 치열한 노력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말입니다. 케데헌이 ‘한국의 것’을 모티브로 삼은 덕분에 지축을 흔들어 버릴 정도로 대성공을 거두었지만, 정작 우리 주변에서 ‘꼴볼견 행태’가 예사로 자행되고 있어서 씁쓸함을 넘어 슬프게 만듭니다. 바로 도심의 간선도로변이나 골목길 등 이면도로변에 함부로 버려지는 담배꽂초가 그것입니다. 거창한 것도 아니고 버려진 담배꽂초가 우리를 그렇게 슬프게 만든다고요? 그렇고말고요. 담배꽂초가 길거리에 함부로 버려지는 데에는 따질 요소가 참 많아요. 필자의 주거지(아파트)는 부산 최대 도심인 서면입니다. 그러다 보니 집 가까운 곳이 모임 장소로 자주 잡혀 걸어 다니며 거리를 살필 기회가 많습니다. 서면의 거리에는 각종 집회가 자주 열리는 데다 먹고 마시며 쇼핑할 장소도 많아 늘 젊은이들로 넘쳐 활기칩니다. 그러나 날이면 날마다 서면 거리는 버려진 담배꽂초로 엉망진창이 되고 맙니다. 이 꼴볼견을 접할 때마다 필자의 가슴은 답답해지고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개선책이 없을까 하고 나름 고민도 해봤지만 표족한 수가 떠오르지 않았어요. 요즘 서면 거리에는 한류 열풍을 타고 수많은 외국인이 캐리어를 끌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들이 거리에 수북이 쌓여있는 담배꽂초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지 정말 걱정되었고, 부끄럽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K-팝이 좋아서, 한류가 좋다고 해서 한국을, 최대 항구도시 부산을 찾았더니 거리에 마구 버려진 담배꽂초 구경만 실컷 하네. 한국인이, 부산 사람들 겨우 이 수준밖에 안 돼?”라고 비웃는 것 같았거든요. 물론 “담배꽂초 무단투기 정도 갖고 뭘 그래.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 아냐?”라고 반박하는

분들도 있겠죠. 그러나 필자는 공공질서 준수와 시민정신의 '기초(基礎)'와 '기본(基本)'이 무너진 대표적인 사례인 만큼 예사로 넘길 문제가 아니라고 강변합니다. 저녁 시간대에 서면 한국전력 부산본부 사옥 뒤편 골목길에 잠시 서 있어 보면 '영망진창의 현장'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어디를 가든 흡연자를 위한 재떨이를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길거리에서 흡연을 즐겼다면 흡연자 자신이 반드시 담배꽂초를 챙기는 성숙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흡연자들은 너도나도 담배꽂초를 거리에 마구 내던집니다. 뜻 있는 시민이라면 '목불인견(目不忍見)의 흉물'을 접하고 답답해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흡연자 부산시민'의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을까를 걱정하면서요.

국민건강증진법과 부산시의 조례는 분명히 금연 장소를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초·중·고 및 특수학교 출입문 주변 50m 이내와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도시철도 출입구 인근, 부산그린파크라인(동해남부선 고가 아래 보행로), 부산시민공원 및 주요 공공장소 등이 지정 대상입니다. 일반도로나 주택가 골목, 주차장 등의 경우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지는 않아도 담배꽂초를 무단투기하면 폐기물관리법과 부산시의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 재활용 촉진 조례 등의 적용을 받아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도심 골목길에서 맘대로 담배를 피울 수는 있을지언정 담배꽂초를 무단 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흡연자에 의해 이 법은 유명 무실해졌습니다. 흡연자들은 자기 집 안에서는 식구들의 등쌀 때문에 흡연을 피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이용하는 공공성(公共性)을 띤 거리에서는 맘대로 담배를 피우고 꺾초를 버린다? 이건 내 것은 아깝고, 남들이 이용하는 공공물은 함부로 써도 된다는 식이잖아요. 부산 서면을 비롯해 전국 도시에 매일 버려지는 담배꽂초를 한 곳에

모은다면 그 양은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담배꽂초 무단투기를 예사로 보아 넘길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법을 위반한다는 점입니다. 무단 주차나 과속 운전을 하다가 감시카메라에 걸리면 관련 법에 따라 꼼짝없이 과태료나 벌금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흡연자가 집단으로 법을 위반하며 쾌적한 도심 거리를 망치고 있는데도 방치한다? 이는 국가와 지자체가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위법 자행 가능 시 그널'을 주는 셈이 됩니다. 따라서 부산시가 당장 준법정신을 줌먹는 담배꽂초 무단투기행위를 차단하는 '특단의 조치' 강구를 촉구합니다. 그렇게 해서 부산 도심이 '담배꽂초 골불건'에서 해방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선 도심 곳곳에 안면 인식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담배꽂초 무단투기 감시 CCTV'를 설치, 시범 운영해 보는 것도 관찮을 것 같습니다. 흡연자들에게 담배꽂초 무단투기가 지극히 사소한 문제로 받아들여질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준법정신을 훼손하고 도시미관까지 해친다는 사실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과속 단속 카메라처럼 꺾초 무단투기 행위를 여지없이 잡아버리는 CCTV를 운용한다면 '즉효(即效)'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빼박의 CCTV 영상'에 잡혀 5만원, 10만원 과태료가 딱딱 부과되는데도 담배꽂초를 함부로 버릴 간 큰 흡연자가 과연 있을까요?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성공에 어깨를 으쓱이거나 환호성을 지르기에 앞서 사소해 보이지만 매우 중요한, '담배꽂초 없는 거리 만들기'부터 시작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담배꽂초를 함부로 거리에 버리는 흡연자는 K-팝과 K-컬처, 케이팝 데몬 헌터를 자랑할 자격이 없다는 점을 행정이 '강제적'으로라도 일깨워 줘야 합니다.

글_심수화 언론인 칼럼니스트

역사와 함께 읊어보는 부산가요



장세정 - 연락선은 떠난다



— 제1화 —

「연락선은 떠난다」와 관부연락선



1959년 오케레코드사에서 재발매된 장세정의 「연락선은 떠난다」 음반

해양허브도시 부산항에는 수시로 화물선, 여객선, 어선 등 다양한 선박들이 드나들고 있다. 부산항을 배경으로 이러한 선박을 노래한 것 가운데는 먼저 ‘연락선’이 떠오른다. 1937년 일제강점기에 불렀던 장세정의 「연락선은 떠난다」를 비롯하여 1976년의 조미미의 「연락선」과 1981년 정재은의 「연락선」 등이다. 조용필이 불렀던 「돌아와요 부산항에」에는 “오륙도 돌아가는 연락선마다”라는 가사가 낯익게 다가선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연락선’은 과연 어떤 선박을 말하는 것일까?

먼저 연락선의 사전적 의미는 이렇하다. “승객, 차량, 화물 등을 싣고 비교적 가까운 거리의 해협이나 해안, 큰 호수 따위의 수로를 횡단하면서 양쪽 육상 교통을 이어 주기 위하여 다니는 선박”을 지칭한다. 특히 “해협을 사이에 두고 양쪽 육상 교통을 이어주는 선박”으로서 영어로는 페리 Ferry라 부른다. 앞서 장세정의 「연락선은 떠난다」와 조용필의 「돌아와요 부산항에」 나오는 연락선은 일본과 관련이 깊은 선박으로서 대한해협을 오간 국제선 관부연락선이다. 반면 조미미와 정재은이 불렀던 연락선은 1970~80년대 국내 연안을 오간 여객선에 해당한다.

장세정의 「연락선은 떠난다」는 일제강점기인 1937년 2월, 오케레코드사에서 발매되었다. 조명암과 함께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 가요계를 이끈 양대 작사가의 한 사람인 박영호(대표곡 「꿈꾸는 백마강」, 「썩사랑」)가 작사하고, 작곡은 오케레코드사의 전속 가수이자 작곡가였던 김송규(예명 김해송, 「목포의 눈물」로 유명한 가수 이난영의 남편)가 했다. 노래는 평양 화신상회에서 악기점원으로 일했던 장세정이 꽃다운 나이인 16살에 불렀다.

그렇다면 연락선 가운데 관부연락선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선박이었기에 이렇게 노래가 되어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는 것일까? 한마디로 관부연락선은 우리 민족에게 아픔과 슬픔 즉 애환이 깊게 배인 선박이다. 그러기에 이 연락선의 성격과 명칭을 정확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성격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명칭에 대한 이해가 앞서야 한다. 관부연락선이라는 이름에는 국적과 입·출항지가 담겨 있다. 더 나아가 관부연락선의 정확한 성격이 담긴 이름은 관부철도연락선이다. 당시 관부연락선의 주무부서는 일본 철도청으로서 해협이란 공간에 선박을 띄워 철도의 기능을 연계시키고자 했다. 중요한 것은 '관부_{關釜}'라는 이름 속에 담긴 일본의 속마음이다. 여기서 '관'과 '부'는 이 연락선의 입·출항지를 말한다. 먼저 '관'은 일본의 '시모노세키'를 지칭하고, 부는 우리나라 '부산'을 가리킨다. 시모노세키를 한문으로 쓰면 '아래 下'자에 '빛장 關'자를 써서 '下關'이다. 일반적으로 입출항지인 양쪽 항구 이름을 붙이려면 첫 글자를 따는 것이 상례다. 그렇게 되면 '하부_{下釜}연락선'이 된다. 그런데 일본은 그렇게 부르지 않고 두 번째 '관'을 이용하여 '관부_{關釜}연락선'이라 명명했다. 왜 그랬을까? 첫 글자 '下'자는 '아래-하부-하류'라는 뜻으로서 일본어로 '시다_{した}' 또는 '시모_{しも}' 등으로 읽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감히 침탈하고자 하는 조선 앞에 자존심이 꾸겨지는 이 글자를 어찌 쓸 수 있었겠는가. 태평양전쟁을 앞두고 일본은 1943년 7월에 수송력 증강을 목적으로 일본 하카다_{博多}와 부산_{釜山} 간에도 연락선을 띄웠다. 그때 명칭은 정상대로 각 지명의 첫 글자를 딴 '박부_{博釜}연락선'이었다.¹⁾

그리고 일본의 지명을 상징하는 관_關이나 박_博이 부_釜보다 먼저 온 것은 힘의 중심 즉 선박의 소유국인 일본이라는 의미다. 가끔 앞 지명의 순서를 바꾸어서 '부관연락선'이라 부르는 것은 우리의 입장에서 부르는 이름이다. 서울-부산 간의 '경부선' 철도명을 '부경선'이라 부르는 현상과 같다.

20세기 초, 러일 전쟁을 승리로 이끈 일본은 동아시아의

패권 국가임을 자임하듯 대국주의와 팽창주의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 이러한 정책변화의 하나가 관부연락선이라는 항로 개설이다. 일본 열도의 산양선_{山陽線} 철도와 조선의 경부선 철도를 연결하기 위해 중간에 선박을 띄워 대륙 진출을 위한 물적·인적 수송 수단을 독단적으로 구축해 갔다. 이처럼 관부연락선의 성격은 대륙 침략과 자본 수탈이라는 통로 구실을 하는 데 있었다.



아사히신문에 게재된 관부연락선 첫 운항 기사(1905년 9월 6일자)

관부철도연락선은 1905년 9월 11일 일기환_{壹岐丸}을 시작으로 격일로 대한해협을 건너게 된다. 그해 11월 1일에는 대마환을 띄워 매일 순차적으로 연락선이 오갔다. 이렇게 해서 부산항에 취항한 관부연락선은 1945년 6월 운항이 중지될 때까지 40년 동안 모두 13척이나 되었고, 수송 인원만 해도 3,000만 명이 넘었다. 관심을 끄는 것은 이들 선명이다.

관부연락선의 이름은 먼저 1905년 일본 근해 일기도와 대마도에서 출발한다. 이후 조선을 식민지화하고부터는 1913년엔 옛 왕조인 신라와 고구려 이름을 따왔고, 1922년엔 서울의 고궁 덕수·창경·경복궁을, 1936년엔 금강산과 같은 조선인에게 아주 친근한 이름을 붙였다. 그리고 만주에서 경제 수탈을 본격화하던 1937년엔 그곳의 산맥 흥안



관부연락선의 전용 부두인 부산항 제1부두 전경(부산근대사료연구소)

이 합류하면서 연간 1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부산항을 오갔다. 밤새워 대한해협을 건너기 위해 연락선은 땅거미가 지는 저녁 무렵이면 출항의 뱃고동 소리를 구슬프게 울렸다.

썩고동 울어울어 연락선은 떠난다
잘 가소 잘 있소 눈물 젖은 손수건
진정코 당신만을 진정코 당신만을
사랑하는 까닭에 눈물을 견디면
서 떠나갑니다

“아 울지 마세요” 울지를 말아요

- 「연락선은 떠난다」 가사 1절

령, 중국 침략이 확대되고 태평양 전쟁의 참전 의욕에 불타 있을 때인 1942년엔 중국 변방의 명산인 곤륜산과 천산에서 선명을 가져왔다. 이처럼 일본에서 시작된 선명이 대한해협을 건너 한반도에 상륙하고, 만주를 거쳐 중국 전체를 포괄하는 것으로 변했다. 단순히 그 민족들에게 아주 친근한 이름을 붙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이름 속에 일본 군국주의의 대륙 진출 정책에 편승한 사회 분위기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바다에서 시작된 연락선의 이름이 결국엔 산으로 올라간 셈이 되었으니 ‘육심이 과하면 화(戰禍)를 부른다’라는 옛말이 예사롭게 들리지 않는다.

1937년 장세정이 「연락선은 떠난다」를 부를 당시만 해도 주로 일본으로 유학을 떠나거나 아니면 일터를 찾아 나선 젊은 노동자가 대부분이었다. 오늘날 부산항 제1부두가 관부연락선 전용부두로서 이곳 부두까지 경부철도가 연결되어 있어서 동경에서 티켓 한 장이면 만주까지 갈 수 있는 눈스톱 시스템이었다. 그 무렵, 부산항을 오갔던 관부연락선은 배 이름만 들어도 낮익은 3,000톤급의 신라·창경·경북·덕수환 4척에다 7,000톤급의 최신예 선박인 금강·홍안환

이 노래는 일본으로 유학 가는 애인과의 이별을 슬퍼하는 내용이 표면에 깔려 있다. 특히 그 무렵 우리 민족이 이 노래를 부르며 사랑한 것은 울분에 맺힌 다양한 한(恨)이 가수의 애절한 목소리에 동조되어 위로가 되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 노래의 작사·작곡가는 관부연락선을 타고 일본으로 음악 공부에 나섰던 유학파들이라 부산항을 드나들며 이러한 이별을 몸소 경험했거나 아니면 이런 장면을 자주 목격했을 것이다. 그래서 더 애절한 곡이 탄생했는지도 모른다. 장세정은 이 노래를 부르면서 일약 스타덤에 올라 그 시대 최고의 여가수인 이난영에게 버금가는 ‘평양이 낳은 가희’가 되었다.

1921년 평양에서 태어난 장세정은 2살 때 어머니를 여의고 뒤에 아버지마저 잃게 돼 할머니 손에서 자랐다. 1936년 꽃다운 나이에 평양방송국 개국 기념 콩쿠르대회에서 1등을 차지하여 당시 오케레코드사의 이철 사장에게 발탁되어 가수로서 화려하게 데뷔했다. 그러나 해방 후에 작사가 조명암은 월북하고, 이어 6·25전쟁 때에 작곡가 김해송마저 납북되면서 그녀의 히트곡 「연락선은 떠난다」를 비롯



부산항 제1부두에 접안되어 있는 덕수환(3,619톤, 부산박물관)



1951년 TEICHIKU사에서 발매한 스가와라 쓰즈코의 「連絡船の唄」 음반

해서 다른 곡들도 훗날 군사정권에 의해 금지곡으로 지정 된다. 이러한 사정으로 가수로서의 입지가 좁아진 장세정은 미국으로의 이민을 결심하게 되고, 1973년 미국행 비행기에 오른다. 미국 생활은 평탄하지 못했다. 1978년에 LA에서 은퇴 기념 공연을 펼치기도 했지만, 그다음 해 고혈압으로 쓰러져 휠체어에 의지하는 비운의 신세가 되었다. 결국 지병이 악화해 2003년 향년 82세로 이국땅에서 생을 마감했다.

가수의 운명과는 달리 「연락선은 떠난다」는 바다 건너 일본에서 더욱 빛을 받았다. 패전 이후 일본인들의 지친 마음을 이 곡이 아우르는 역할을 해주었기 때문이다. 1951년 7월 일본의 「엘레지의 여왕」으로 불리는 스가와라 쓰즈코菅原都々子が 「연락선의 노래 連絡船の唄」라는 제목으로 재취입하여 열도를 뜨겁게 달구었다. 이후로 일본의 술한 가수들이 이 노래를 따라 불렀고, 마치 국민가요처럼 되었다.

스가와라는 '엔카의 아버지'라 불리는 고가 마사오의 양녀로 들어가 11세에 「아버지의 노래시계」로 데뷔했다. 「연락선의 노래」 이후에 「에노섬 엘레지」로 「엘레지의 여왕」이라는 별칭까지 얻게 되었다. 이후 아리랑과 도라지를 시작

으로 1955년부터 2년 동안 「아리랑 비가」 「아리랑 애가」 「아리랑 달밤」 등 창작 아리랑을 발표하였고, 심지어 이난영의 「목포의 눈물」을 리메이크하는 등 한국풍의 노래를 즐겨 불렀다. 이런 노래 때문에 스가와라의 핏줄을 의심하는 뒷말이 많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유년기를 조선에서 보낸 스승 고가 마사오의 영향이 컸다는 쪽에 무게가 실렸다.²⁾

관부연락선은 우리에게 인적 물적 수탈의 선박이다.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조선의 토속적 선율이 바다를 건너가는 통로 역할을 했다. 특히 연락선에 담긴 이별의 아픈 정서는 연락선의 뱃고동 소리와 함께 사라진 것이 아니라 시대와 민족을 초월한 공감의 예술혼이 되어 오늘도 흐르고 있으니 말이다.

글_이용득 부산항역사문화연구소장

1 박부연락선은 1943년 7월 15일에서 1945년 6월 9일 동안 약 2년에 걸쳐 운항하였으며, 대표적인 연락선은 관부연락선과 겹치기 운항한 금강환이었다.
2 「김문성의 盤세기」, 1937년, 「연락선은 떠난다」, 동아일보(2018.12.10.)

부산예총 2025년 제5차 이사회 개최

2025. 7. 24.(목) 오후 5시 부산예술회관 306호



부산예총 제5차 이사회에는 오수연 회장, 김인숙 수석부회장, 권성은(부산음악협회 회장) 부회장, 부산 건축가회 김두진 회장, 부산무용협회 남선주 회장, 부산미술협회 최장락 회장, 부산사진작가협회 강종관 회장, 부산연예예술인협회 안규성 회장이 참석했다. 제4차 이사회 회의결과인 제24회 부산예술상 및 예술문화 공로상 변경의 건에서 특별상 5명 추가가 가결되었음을 보고하고, 라발스호텔 업무협약 체결 건에 대해 보고했다. 제5차 이사회 안건으로는 ▶부산예술회관 기획 '제14회 젊음의 축제' 결산보고 승인의 건 ▶부산예총 기획 '제63회 부산예술제' 예산(안) 승인의 건 ▶부산예술회

관 기획 '예술의 흔적' 예산(안) 승인의 건이 상정, 통과됐다. 기타 안건으로는 신임 김경중 사무처장 선임 동의안, 부산아트빌리지 '흥축제' 관련 사항 등이 논의됐다.

2025 점심버스킹 in Madang 탈피 <일상 속에서의 잠깐의 '탈피':심"표>

2025. 8월 부산예술회관 1층





**시네바움
9월 강좌안내**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시네바움**

1일은 미술평론가 최석태가 '새 나라, 새 미술: 세종 르네상스 시대의 미술'로, 8일은 1부 박홍교 교수의 '노년, 그 의미와 품격'과 2부는 이기숙 교수의 '노년, 그 교묘한 아름다움'으로, 15일은 박홍식 교수의 '나를 디자인하다: 퍼스널 브랜딩의 힘'으로, 29일은 영화평론가 김영광이 시네마 언노운(에서도) '보이지 않는 영화들' 공모작 중 한 편을 상영 후, 연출 감독과 함께 GV를 진행 예정이다. 그리고 매월 첫째 주와 끝 주 목요일 오후 5시에는 각각 '중국어로 읽는 당시 삼백수'와 '하이쿠 산책'도 준비되어 있다.

문의 010-2774-34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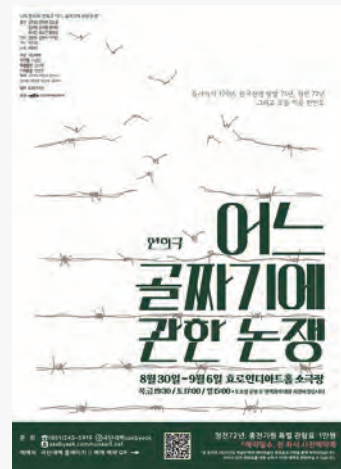


**제7회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오충근 & 부산
심포니오케스트라
: 파이프 오르간 인 빈야드**

**9. 2.(화) 오후 7시 30분
부산콘서트홀**

클래식 가치를 30년 이상의 역사로 기록하며, 한 세대에 머물지 않고 과거에서 현재로 그리고 미래의 세대와 소통하는 클래식 정통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가 준비한 이번 정기연주회는 빈야드 스타일의 클래식 전용공연장인 부산콘서트홀에서 무대예술, 건축음향의 우수성과 파이프오르간의 위용을 담아 시민들에게 극대화시킬 수 있는 교향곡 두 곡을 오충근 감독의 지휘로 진행된다. 개관 축하의 의미와 부산의 정체성을 담은 하순봉의 창작 교향곡 「부산을 세계 초연하고, 파이프오르간 생상스의 교향곡 3번 「오르간」을 오르가니스트 신동일이 선보인다.

문의 051)621-4577



**연희극
<어느 골짜기에 관한 논쟁>**

**8. 30.(토) ~ 9. 6.(토)
목, 금 오후 7시 30분
토 오후 5시 / 일 오후 3시
효로인디야트홀 효로소극장**

본 연극은 한국근현대사를 주제로 전통연희의 놀이성과 서사기법을 적용한 극작연출가 이성민의 연희극 <어느 골짜기에 관한 논쟁>의 1998년 초연한 이후에 극단새벽의 대표적인 레퍼토리 작품으로, 관객들로부터 줄곧 극찬을 받았다. 한반도 분단과 전쟁의 아픈 역사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삶과 회환을 담아내고, 한반도의 오늘날 '이곳'을 조망한다. 나아가 '땅의 소유를 둘러싼 논쟁'에 생태적 관점을 제기하며, 장소가 가지는 의미와 이곳이 어떠한 경험을 제공해야 하는지에 대해 관객들에게 질문과 고민을 던진다.

문의 051)245-5919



창작뮤지컬
〈복근이 필요해〉

9. 3.(수) ~ 14.(일)
평일 오후 7시 30분
토 오후 3시, 6시 / 일 오후 3시
어댑터 씨어터 2관

학교에서 공식 왕따인 영철은 매일 같이 상진과 진상에게 괴롭힘을 당하며 지쳐간다. 그러던 어느 날, 전학생 복근과 DVD방 알바생 재인을 만나고 셋은 기막힌 복수를 결심한다. 하지만 복수는 생각보다 쉽지 않고 그 과정에서 이들은 그들 내부 속 두려움, 편견, 상처와 마주한다. ‘학교폭력’이란 무거운 주제를 유쾌하고 코믹한 뮤지컬로 구현한 작품은 주인공 세 명이 겪는 과정과 변화를 통해 진정한 용기와 폭력, 친구의 의미를 되새겨 본다. 극을 통해 인물 간 상처와 회복, 관계의 중요성을 감각적으로 드러내고 이에 대해 관객에게 질문을 던진다.

문의 070-8612-5244



고래등古來燈 햇살품은 동래
이영혜 개인전

9. 5.(금) ~ 14.(일)
스페이스 포포

전시는 동래에 살며 체감한 “전통과 역사를 품은 포근하고 따뜻한 도시 동래”의 모습을 드러낸 작업을 모은 것이다. 작가는 고래가 숨을 쉬기 위해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것처럼 고래 등의 형상을 닮은 복천동 고분군 위에 앉아, 여전히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도시의 정체성을 탐닉한다. 안락함과 포근함에 이끌리고 삶 속에 스며든 역사의 흔적, 그리고 그 안에서 피어난 미처 눈에 띄지 않았던 숨겨진 이야기를 고스란히 담아냈다. 감정을 불러일으킨 공간 안에서 내면의 감정을 깊이 들여다보는 경험에서 공간 자체를 깊이 탐색하는 또 다른 시선을 만날 수 있다.

문의 010-8558-0026



한국피아노학회 영남지부
제25회 정기연주회
조르주 비제 서거 150주년
기념 〈비제 그리고 피아노〉

9. 16.(화) 오후 7시 30분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한국피아노학회 영남지부]는 조르주 비제 서거 150주년을 기념하여 〈비제 그리고 피아노〉 특별 연주회를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진행한다. 본 공연은 조르주 비제의 작품세계를 재조명하고, 그의 음악적 특징인 절도 있고 화려한 색채와 원초적인 감성을 피아노의 감성적이면서도 유려한 음들과 멜로디로 펼쳐 보일 예정이다. 특히, 이번 한국피아노학회 영남지부 제25회 정기연주회에서는 비제의 주옥같은 대표작을 독창적으로 재해석하고, 그가 가진 감수성을 오히려 담아내어 청중들에게는 음악에 대한 깊은 이해와 영감을 동시에 전할 것이다.

문의 010-5773-91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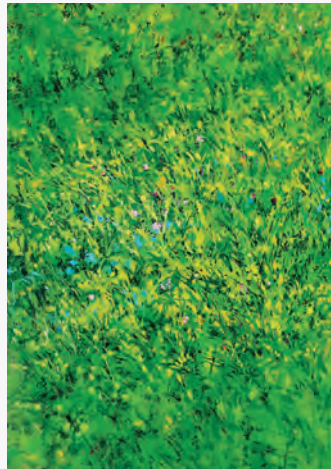


제30회 부산국제영화제

9. 17.(수) ~ 26.(금)
영화의전당

올해는 부산국제영화제가 경쟁 부문을 새롭게 도입해, 9월에 개최된다. 아시아 영화 가운데 최고의 작품을 선정해 '부산 어워드'를 수여한다. 대상 수상작은 폐막작으로 상영돼 영화제 대미를 장식할 예정이다. 개막작으로는 박찬욱 감독의 <어쩔수가 없다>가 선정됐다. 신작 <어쩔수가 없다>는 '다 이루었다'고 느낄 만큼 삶이 만족스러웠던 회사원 '만수' (이병헌)가 덜컥 해고된 후, 아내와 두 자식을 지키기 위해, 어렵게 장만한 집을 지켜내기 위해, 재취업을 향한 자신만의 전쟁을 준비하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는다. '올해의 아시아영화인상' 수상자에는 이란의 거장 자파르 파나히 감독이 선정됐다.

문의 1688-3010



제78회 미술동인 기획전 함께, 변화의 물결

9. 12.(금) ~ 29.(월)
갤러리조이

9월 12일부터 9월 29일까지 갤러리조이에서 제78회 미술동인 기획전 '함께, 변화의 물결'이 개최된다. 이번 전시는 올해로 78회째 부산에서 개최하는 현대 미술전이며, 부산 현대미술의 발전을 주도한 혁신창립 63주년 정기전 행사로 진행된다. 단체는 이전부터 부산 지역 미술 발전에 큰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며 이번 전시에서는 기존의 고정관념, 전통에 얽매인 이론을 거부하고 새로운 모색에 의한 실험적인 작업으로 어떠한 사조나 사상, 관념 등도 창조를 통해 넘어설 수 있다는 힘을 가지고 현대미술의 불씨를 불꽃처럼 일으키겠다는 의미를 담아내었다.

문의 010-2868-6493



시노두스 심포니 오케스트라 제12회 정기연주회 일상으로 클래식 여행을 떠나자 오스트리아! 러시아!

10. 12.(일) 오후 6시
금정문화회관 금빛누리홀

라틴어로 '다 함께'라는 뜻을 가진 시노두스 심포니 오케스트라(CSO)가 진지한 음악 정신을 바탕으로 21세기 부산·경남의 음악 발전을 위해 활동 중이다. 이번 공연은 지휘자 이동신, 바이올리니스트 김다미, 작곡자 정수란의 특별한 무대로 준비해, 관객과 함께 시공간을 넘어 음악으로 떠나는 특별한 여정을 선보일 계획이다. 클래식 음악의 중심인 오스트리아와 열정과 깊이를 품은 러시아까지 다채롭게 진행된다. 창작곡으로는 정수란 작곡의 「오케스트라를 위한 탈춤 Masked Dance」이 무대에 오르고, 하이든의 「교향곡 제88번 사장조」와 차이코프스키의 「바이올린 협주곡 라장조, 작품번호 35번」을 감상할 수 있다.

문의 010-8733-7438



문워크 [moonwalk] 김덕남 / 목언예원

전통 시조의 형식 안에 파격과 환상이 깃들었다. 시인은 고통과 유머, 비약과 환상을 자유롭게 넘나들며, 현대적 감각으로 새롭게 직조된 시조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마법의 뒤꿈치 들고/별을 찾아 댄스 댄스'(문워크, 부분)라는 시구처럼, 이 시조집은 일상의 무게를 밀어내고 중력을 거스르는 상상력의 춤이다. '골반의 지느러미로/크로스 크로스 퀘! 퀘!' 같은 대목에서는 시적 리듬과 유쾌한 해방감이 살아난다.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 「문워크」 등의 작품에서는 현실과 비현실, 정상과 비정상 사이의 아슬아슬한 경계를 통과하는 감각이 또렷하게 드러난다. 형식에 묶이지 않고 언어의 경계를 넓히는 시편들은 시조가 지닌 울림의 폭을 새롭게 각인시킨다.



희망 허그 오은환 / 가담

삶의 안개 속을 묵묵히 걸어온 시인이 여섯 번째 시집을 펴냈다. '나는 나를 잘 통제하고 있었는가/나는 차츰 정체되고 있는가'라는 프롤로그의 고백처럼, 이 시집은 고탄탄 사유 속에서 자신을 다듬고 보듬어온 시간의 기록이다. 제목으로 선정된 본문 속의 「희망 허그」에서는 '그늘에 드리운 어둠일랑/이제 여미어 잠재우자'는 시구처럼, 마음속 주름을 펴고자 하는 간절한 기도가 담겨 있다. 시인은 누군가를 따뜻하게 안아주는 일로 희망을 말한다. 돌담을 쌓듯 묵묵히 삶을 견뎌온 시편들은 독자에게도 스스로를 감싸안고 다시 앞으로 걸어가게 하는 부드러운 용기와 희망을 건넨다. 시집을 집필한 오은환 시인은 작년 24년에 '부산시인 작품상'을 수상한 바 있다.



한 무용인의 사색 장정운 / 맑은샘

삶과 예술, 고독과 사유의 경계에서 무용을 바라본 한 예술가의 기록이다. 저자는 자신을 정체해 온 시간을 돌아보며, 무용이라는 예술의 본질에 대해 고요히 사유한다. '마음속 어두운 명령을 따라가며 나는 밝은 희망의 글쓰기를 놓치지 않는다'는 고백처럼, 이 책은 몸과 마음을 매개로 한 무용의 언어를 통해 인간의 내면을 탐색한다. 총 8장으로 구성된 책은 순수무용의 본질, COVID-19 이후 무용의 메시지, 마리 뷔그만 Mary Wigman의 창작과 정에 대한 글, 그리고 무용인의 훈련과 행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를 입체적으로 다룬다. 철학과 경현, 감각과 이론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이 책은 무용을 삶의 언어로 읽어내고자 하는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전한다.

월간 『예술부산』

광고지면안내

What?

- 예술 관련 단체 또는 기업 광고
- 각종 행사, 공모, 전시, 공연, 신간 광고 외

Where?

- | | |
|------------------------------|-------------|
| · 표2 (앞표지 안쪽) | 700,000 (천) |
| · 표2대면 (앞표지 안쪽 우측면) | 700,000 |
| · 표3대면 (뒷표지 안쪽 좌측면) | 500,000 |
| · 표3 (뒷표지 안쪽) 마감! | 500,000 |
| · 표4 (뒷표지) 마감! | 1,000,000 |

How?

- 광고 사이즈 : 가로 200 × 세로 260mm
- 문의 : 051)612-1372 / artbusan1997@naver.com

* 1년 연속 게재 시, 또는 예총 회원 및 회원 단체인 경우 할인 적용 가능함.

“월간 『예술부산』은”

1997년 창간된 **종합 예술 잡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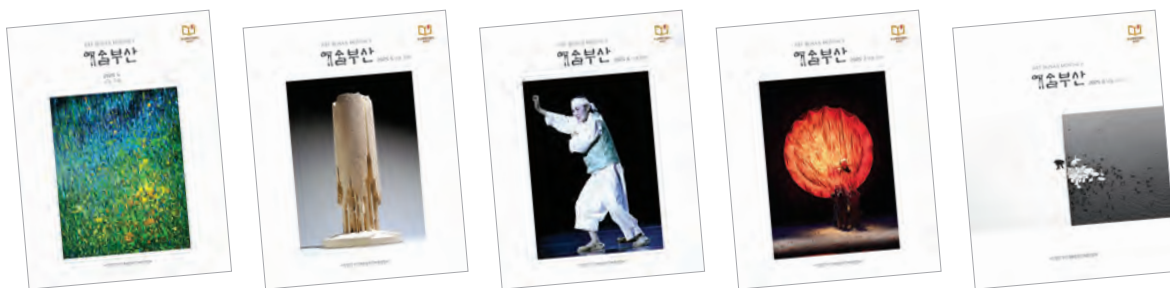
부산에서 전시·공연되는 예술의 성과를 집대성하고 예술인들의 활동과 업적을 아카이브하며 부산 예술계의 수준 높은 예술문화를 대내외적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부산만이 아닌 **전국으로 배부**됩니다.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및 전국 지회·지부, 언론사, 국립중앙도서관 및 부산의 도서관, 부산은행 전 지점, 부산의 주요 갤러리·공연장, 공공기관, 시·구청, 일반 정기구독자 등.

MECENAT & SUBSCRIPTION

부산의 예술문화를 사랑하는 당신을 메세나로 모십니다.



메세나 광장

MECENAT

『예술부산』은 메세나가 되어주신 분들의 아낌없는 성원에 힘입어 그동안 기반을 닦았습니다. 『예술부산』과 함께 부산의 예술 문화 발전에 앞장서는 동반자가 되어주실 메세나를 찾습니다.

메세나 광장

방 성 빈 BNK부산은행 은행장

정 은 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예술부산』을 후원해주시면

- 첫째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1항 5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1항 5조에 의거하여 세제혜택을 드리며,
- 둘째 사단법인 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에서 주최하는 모든 문화행사에 우선적으로 초대하고,
- 셋째 월간으로 발간되는 『예술부산』을 보내드립니다.

정기구독

SUBSCRIPTION

월간 『예술부산』은 부산 시민과 예술문화인에게 보다 가깝게 다가가고자 합니다. 서면 영광도서에서 해당 호를 구매할 수 있고(정가 5,000원) 1년 정기구독을 신청하면 50% 할인된 금액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예술부산』 정기구독 신청

전화 051)612-1372

팩스 051)631-1378 또는

이메일 artbusan1997@naver.com을 이용하여 구독신청을 하시고 1년간 구독회비 30,000원을 입금하시면 해당 호부터 보내드립니다.

부산은행 101-2024-8255-00

예금주 (사)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예술부산』은 여러 장르에 걸친 예술문화의 향기를 더욱 많은 회원들과 나누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

부산 시민과 함께하는
제11회 부산국악축제


모란 모란

주최/주관 :  **사단법인 한국국악협회** 부산광역시지회
Korean Traditional Music Association

후원 :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의회**  **부산광역시교육청**  (사)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전국화물자동차운수사업연합회·공제조합  난계국악원, [사]한국판소리보존회 부산금정지부
동래미치과, 경기민요 제57호 전수소

2025. 9. 14.(일) pm5: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공연문의 :  **사단법인 한국국악협회** 부산광역시지회 T. 051)644-5211
Korean Traditional Music Association

9.27. —
11.2.

다대포해수욕장
Dadaepo Beach

Sea
Art Festival
2025
바다미술제

물 위 를 걷 는 물 걸 들

Under
water
rents



한국거래소
자본시장역사박물관

우리 자본시장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위 치 | 부산국제금융센터 (BIFC) 51층

방문 전 관람문의 (051-662-2559)

관람료는 무료이며, 토/일 ·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금융을 편리하게
미래를 풍요롭게

부산의 숨은 명소 **다대포**(아미산 전망대)

부산의 서쪽 끝에 위치한 다대포해수욕장은 드넓은 백사장과 갈대밭, 그리고 아름다운 낙조로 유명합니다. 아미산 전망대에서는 낙동강과 바다가 만나는 지점을 내려다보며 환상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바다와 강이 만나는 자연의 콜라보, 부산

강이 끝나는 곳에서 바다가 시작되고 갈매기와 철새가 함께 나는 곳

두근두근 설레는 맘으로 기다린 끝에 맞이하게 되는

해와 강이 만들어내는 웅장한 낙조는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다대포만의 풍경을 연출하죠.

부산이라 만들어 낼 수 있는 다대포라는 작품

부산을 사랑합니다

※ '부산을 사랑합니다' 광고는 BNK부산은행 직원 및 직원가족으로 구성된 홍보모델 'B-크리에이터'들과 함께 촬영하여 제작되었습니다.



유튜브 영상 바로가기

정가 5,000원



9 771976 974008

ISSN 1976-9741

세상을 가슴 뛰게 하는 금융 **BNK** 부산은행